



2020 한국 ESG금융 백서
지속가능금융,
교차로에 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www.kosif.org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은 2007년 사회책임투자(SRI)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SRI 연구·개발, 홍보·확산, 정책개발·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환경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CDP한국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외 TCFD, PACF, RE100, EV100, SBTi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확산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국회의원 이용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정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석사·박사를 마치고 기업에서 투자 및 채권·자산·신탁운용을 담당하고 2016년에 카카오뱅크 공공대표를 맡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등 경제와 금융분야의 실무를 거친 경제전문가다. 2020년, 국회에서 ESG채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21년에는 국정감사에서도 ESG활성화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SG금융백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에 ESG투자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하여 백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2020 한국 ESG금융 백서 지속가능금융, 교차로에 서다

보고서 작성: 이다연, 김태한, 이종오, 정승혜
디자인: 화소

목차

발간사

| | |
|---------------------|----|
| 김영호 이사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02 |
| 이용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03 |

본문

| | |
|--------------|----|
| Key Findings | 04 |
|--------------|----|

ESG금융 국내외 동향

| | |
|------------------|----|
| ESG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 | 08 |
|------------------|----|

ESG금융 현황 분석

| | |
|----------------------|----|
| 한국 ESG금융 규모 | 10 |
| ESG금융 목표 | 12 |
| ESG대출 | 14 |
| ESG투자(사회책임투자) | 17 |
| ESG공모펀드(사회책임투자 공모펀드) | 19 |
| ESG금융상품 | 21 |
| ESG채권발행 | 24 |
| ESG금융 분류체계 | 27 |

| | |
|-----------------|----|
|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론 | 29 |
| ESG금융 응답기관 | 30 |
| 지속가능성등급 및 저탄소지명 | 34 |

Disclaimer

© 2021 KoSIF All Rights Reserved. 본 백서의 내용은 이용우 의원실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신뢰하는 출처로부터 취득한 것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그 정확성 및 완전함이 전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 데이터, 분석 보고 및 의견들은 KoSIF 고유의 자료이고 복제·배포가 금해져 있으며 오로지 정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1 Morningstar, Inc. and Morningstar Korea Limited All Rights Reserved. 본 백서의 내용 중 ESG공모펀드(사회책임투자 공모펀드)에 제공되는 정보, 데이터, 분석보고는 모닝스타 고유의 자료이고, 복제·배포가 금해져 있으며, 오로지 정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이사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전 세계는 지금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성장으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전환의 문을 여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입니다.



“

그린워싱과 소셜워싱, 즉 ESG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색분류체계뿐만 아니라 사회분류체계의 조속한 개발과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

자본의 대이동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전 세계의 자본은 ESG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ESG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전 세계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35조3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ESG의 선진 지역인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경제로 자본의 흐름을 재조정하고, 리스크 관리에서 지속가능성을 주류화하며, 금융과 산업 활동에서 투명성과 장기주의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인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2018년도에 마련하여 10가지 법·제도 패키지 성격의 과제를 차근차근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를 이미 만들었고, 올해 7월에는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초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관련 의무를 강화한 법인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를 올해 3월 시행하였고, 비재무정보공시지침(NFRD)의 적용범위와 공시수준 등을 더욱 강화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2024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EU와 유사한 방향으로 ESG금융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1월 발표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영우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한국 ESG금융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공적금융과 민간금융에 대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이에 응답한 132개의 기관의 ESG금융 방식과 규모를 파악한 최초의 백서입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ESG투자, ESG대출, ESG금융상품(보험, 예·적금, 카드, 펀드(리테일)), ESG채권을 망라한 ESG금융 규모는 약 492조 원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인 ESG 주류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ESG금융도 분명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백서에서의 수치는 개별 금융기관이 스스로 생각하는 ESG개념이나 ESG분류체계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린워싱과 소셜워싱, 즉 ESG워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서에서는 바로 그러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

한 정책적인 제안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그린 택소노미와 소셜 택소노미의 개발입니다. 현재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소셜 택소노미 개발을 위한 논의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늬만 녹색금융이 활개쳤던 뼈아픈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면, 택소노미의 의무화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속한 ESG정보공개 의무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ESG정보는 ESG금융 생태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전환의 시대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새로운 룰을 적극적으로 재편하는 룰 세터(Rule-setter)와 이 룰을 따라가며 적응하는 룰 팔로워(Rule-follower), 그리고 새로운 룰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자입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는 ESG금융에 우리나라가 룰 세터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ESG는 금융투자자 관점이 중심이 된 도구적 개념 성격이 강합니다. 지속가능성은 근본적으로 모든 조직이 자신의 규모와 영향력과 역량에 따른 사회적책임수행을 통하여 달성 가능합니다. ISO26000은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거래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이라는 7대 주제에 대하여 여러 경제주체들이 각각의 사회적책임(SR)을 져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투자자 관점의 ESG와 사회적책임의 국제표준 ISO26000은 서로 배제가 아닌 통합의 관점에서 보고 사회적책임 관련 법과 제도를 광범위하게 구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ESG금융 백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이영우 의원실, 또한 ESG펀드와 관련하여 별도의 자료를 제공해 주신 모닝스타코리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와 환경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경제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ESG워싱 방지를 위한 ESG 분류체계 확립, 정부 차원 ESG채권의 공급 다변화, ESG요소 발행자의 신용평가 시 반영, 인증 문제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정책,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E), 주주를 넘어서 근로자, 소비자, 사회공동체까지 포함한 이해당사자 Stakeholder를 위한 가치창출(S), 소액주주를 중시하고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G)를 갖춘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수익률도 높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지속가능성을 핵심 투자 지표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에 따르면 2020년 말 전 세계 지속가능투자 규모는 35조3,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국내의 ESG관련 대출, 투자, 금융상품, 채권 등 ESG금융 총액은 약 492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7년 대비 242%가 증가한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ESG금융 추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질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적용 중인 책임투자보고서 제출 의무를 내년부터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 전체로 확대하고, 선정 및 관리에 책임투자 이행 여부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적연기금의 사회투자가 민간영역까지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ESG정보공시 의무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E&S 공시 의무화를 2030년으로 목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2026년을 목표로 하는 G(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일정에 맞추어 지속가능경영 공시에 ESG를 한데 엮어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해 ESG 경영을 촉진하고 있는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 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그리고 금융안정위원회의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등 모범적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ESG워싱 방지를 위한 ESG 분류 체계 확립, 정부 차원 ESG채권의 공급 다변화, ESG요소 발행자의 신용평가 시 반영, 인증 문제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정책,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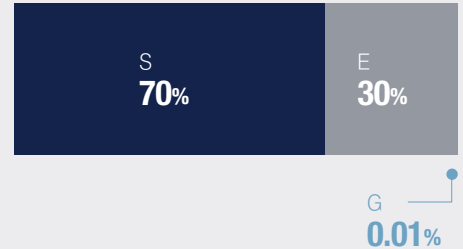
막중한 책임감으로 ESG금융백서를 발간했습니다. ESG 금융 전체 현황을 연구한 최초 자료라는 부담도 있지만, 향후 더 많은 시각과 통찰력을 가지고 ESG 금융에 대한 연구자료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공적금융과 민간금융을 아울러 국내 ESG금융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Key Findings

ESG 대출

184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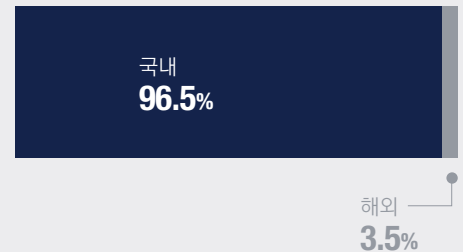
| | |
|----------|-------|
| 개인대출 | 17조원 |
| 기업대출 | 147조원 |
| 프로젝트파이낸싱 | 20조원 |



ESG 투자

188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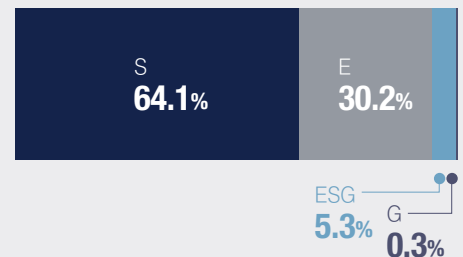
| | |
|------|-------|
| 주식 | 107조원 |
| 채권 | 65조원 |
| 대체투자 | 16조원 |



ESG 상품

62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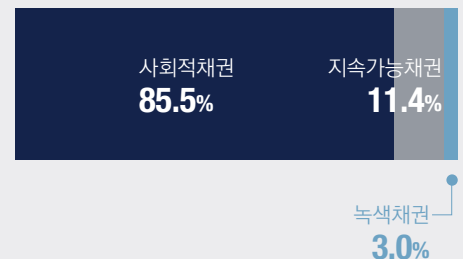
| | |
|---------|------|
| 보험 | 15조원 |
| 예·적금 | 39조원 |
| 카드 | 3조원 |
| 펀드(리테일) | 5조원 |



ESG 채권발행^{1,2}

59 조원

| | |
|-----|------|
| 금융 | 55조원 |
| 비금융 | 4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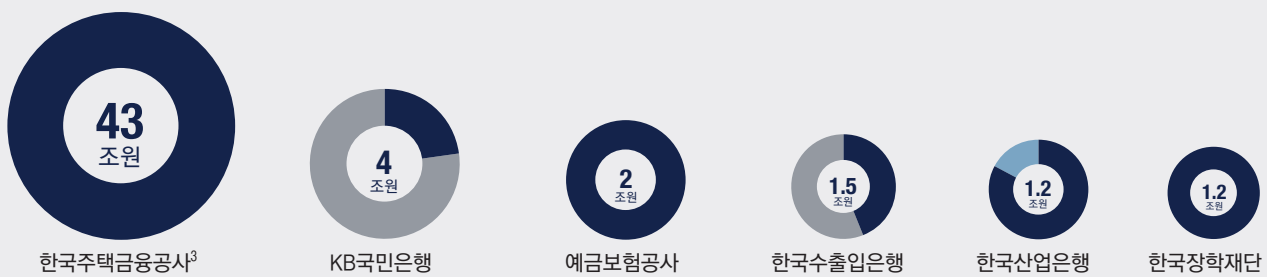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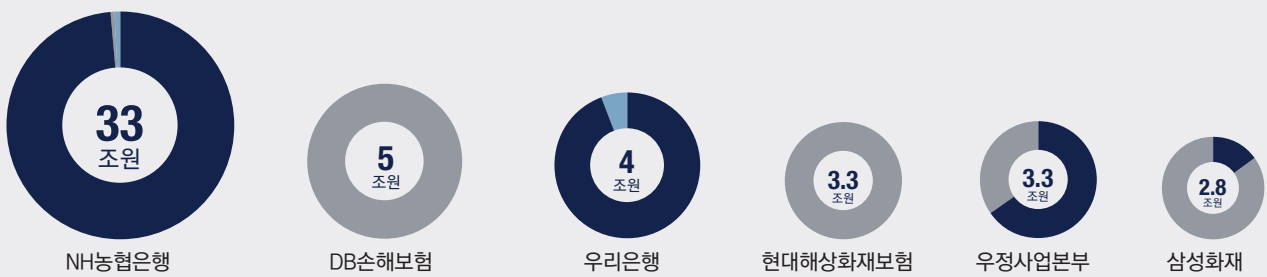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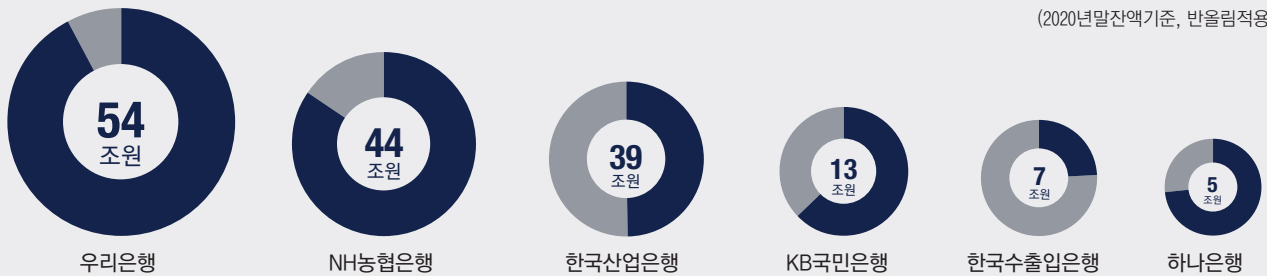
ESG 금융규모

492 조원



1. ESG채권발행 규모는 2020년 신규발행액 기준 누적
2. 2020년말 기준 누적발행액 : 90조원
3. 한국주택금융공사 2020년말 기준 누적발행액: 63조원

(2020년말잔액기준, 반올림적용)



Key Findings

ESG금융 규모 양적 성장세 지속, 질적 성장 위한 ESG금융 생태계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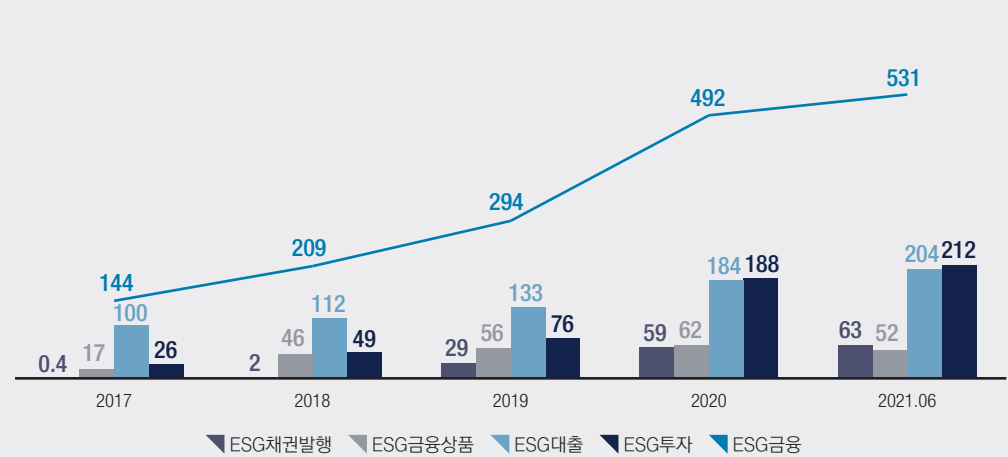
- 2020년 ESG금융 규모는 492조원으로 2017년 대비 242% 성장
- 모든 유형에서 지속 성장세를 보였으나, 일부 ESG이슈 또는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 ESG금융의 정의, 분류체계, 공시체계, ESG위험 방지 정책 등 ESG 금융의 질적성장을 위한 체계는 아직 미비

제언 ESG금융 활성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

- 금융위원회의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은 단기로 ESG금융 전반을 아우르지 못함
- ESG금융은 장기주의적 속성에 부합하므로 건전한 ESG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

연도별 ESG금융유형 규모 추이

(단위: 조원)



ESG금융목표 기준 제각각, 일관된 목표수립 기준 마련해야

- 32개 금융기관(민간 27개, 공적 5개), ESG금융목표 보고
- 5대 금융그룹 모두 보고, 주요 공적 금융기관 가운데 국민연금만 구체적 수치 미보고
- 금융기관별 목표수립 기준 달라, 미래 투자규모 파악과 목표수준 비교 어려워

5대 금융그룹 및 주요 공적금융기관 ESG금융 목표¹

| 금융기관 | 목표 연도 | 목표 금액 | 2020 AUM 대비 비중 |
|---------------------|-------|---------------|----------------|
| 농협금융그룹 | 2021 | 2 조원 | 0.37% |
| 신한금융그룹 | 2023 | 79 조원 | 16.25% |
| 우리금융그룹 ² | 2030 | 100 조원 | 27.90% |
| 하나금융그룹 ³ | 2030 | 60 조원 | 14.67% |
| KB금융그룹 ⁴ | 2030 | 50 조원 | 9.52% |
| 국민연금 | 2022 | 구체적 목표 수치 미보고 | |
| 중소기업은행 | 2025 | 12 조원 | 3.57% |
| 한국산업은행 ⁵ | 2030 | 13 조원 | 5.24% |
| 한국수출입은행 | 2030 | 180 조원 | 184.45% |

제언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자금 흐름 파악하고, 'ESG위험'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ESG금융목표 수립 기준 제시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한 자금 공급 필요
- 『필요자금 파악 → 既투자목표 확인 → (불충분한 경우)추가자금 유입 위한 정책 수립』과정을 거쳐 정책 수립
- 왜곡된 정보 유통 차단 및 정책의사결정을 위해 ESG금융 목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1. 목표 기준: 신규취급액 누적 / 채권 발행액 불포함, 다른 기준을 적용한 금융기관은 별도 언급(주석 참조)
 2. 채권발행액(10조원) 포함
 3. 채권발행액(25조원) 포함
 4. 2030년 잔액기준
 5. 2030년 당해연도 투입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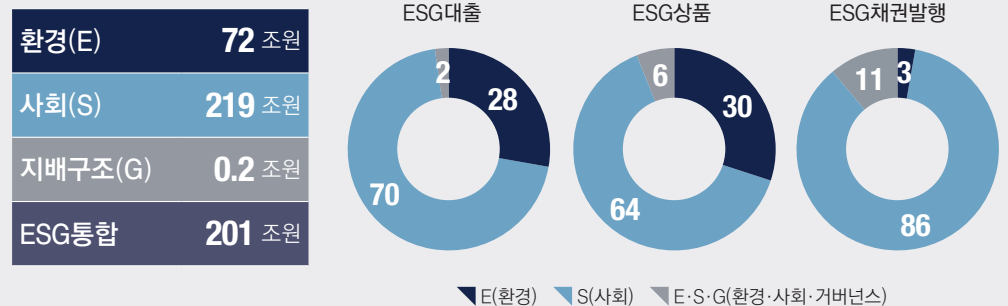
국내 금융기관 ESG금융 활동 분류 및 보고 기준 불명확, 분류체계 정비 서둘러야

- ESG성과를 포괄 평가하여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ESG투자를 제외한 ESG금융유형 모두 사회(S)영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 금융기관은 사회(S)영역의 금융활동 분류를 위해, ICMA의 SBP¹, UN의 SDGs² 및 자체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ESG금융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활동 사례 다수 발견

제언 분류체계Taxonomy는 ESG금융의 시작점으로, 그린워싱 또는 ESG워싱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정립해야

- 환경부 2021년 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도입 계획 및 초안 발표했으나, LNG발전의 포함 등으로 사회적 논란 지속
- EU는 올해 7월 사회분류체계Social Taxonomy 초안 공개했지만, 국내는 아직 분류체계 도입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상황

E·S·G이슈별 규모 및 대출, 상품, 채권발행의 E·S·G비중 (단위: %)



ESG금융상품의 정의 및 기준 모호, 금융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금융상품 ESG정보 공시 필요

- 다수 금융기관이 ESG금융상품을 ESG금융으로 구분하여 보고, 목표수립 시에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 2020년 기준, 국내 ESG금융상품³ 규모는 62조원
- ESG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 부재하여, 금융기관별 규모 차이가 현격했으며, 금융상품의 실제 환경, 사회적 기여도도 불분명

ESG금융상품 유형별 규모 및 주요 상품

| 금융상품 | 규모 | 주요 상품 |
|----------|-------|--|
| 펀드 (리테일) | 5 조원 | NH-Amundi책임투자1호(국민연금), ETF(전기차), (공모)한화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 KB 코리아 뉴딜 증권투자신탁(주식) 등 |
| 예·적금 | 39 조원 |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 시니어 플러스 우리예금, 늘푸른하늘통장, KB맑은하늘적금, 디딤씨앗적금, 도전 365 적금, 국민연금안심통장 등 |
| 보험 | 15 조원 | 품질인증부품사용 특약, ECO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별약관, 참좋은간편건강보험, (무)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 등 |
| 카드 | 3 조원 | 농촌사랑클럽체크카드, 스타트 체크카드, 그린카드,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 등 |

제언 금융상품 유형별 ESG상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고, 상품별 ESG정보공시 제도 도입해야

- 2021년 3월부터 시행중인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은 펀드상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예·적금, 보험 등을 ESG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펀드 이외의 금융상품의 정의 및 공시 기준 마련 필요

1.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사회적채권원칙(SBP)
 2.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3. ESG금융상품유형: 펀드(리테일), 예·적금, 보험, 카드

ESG금융 국내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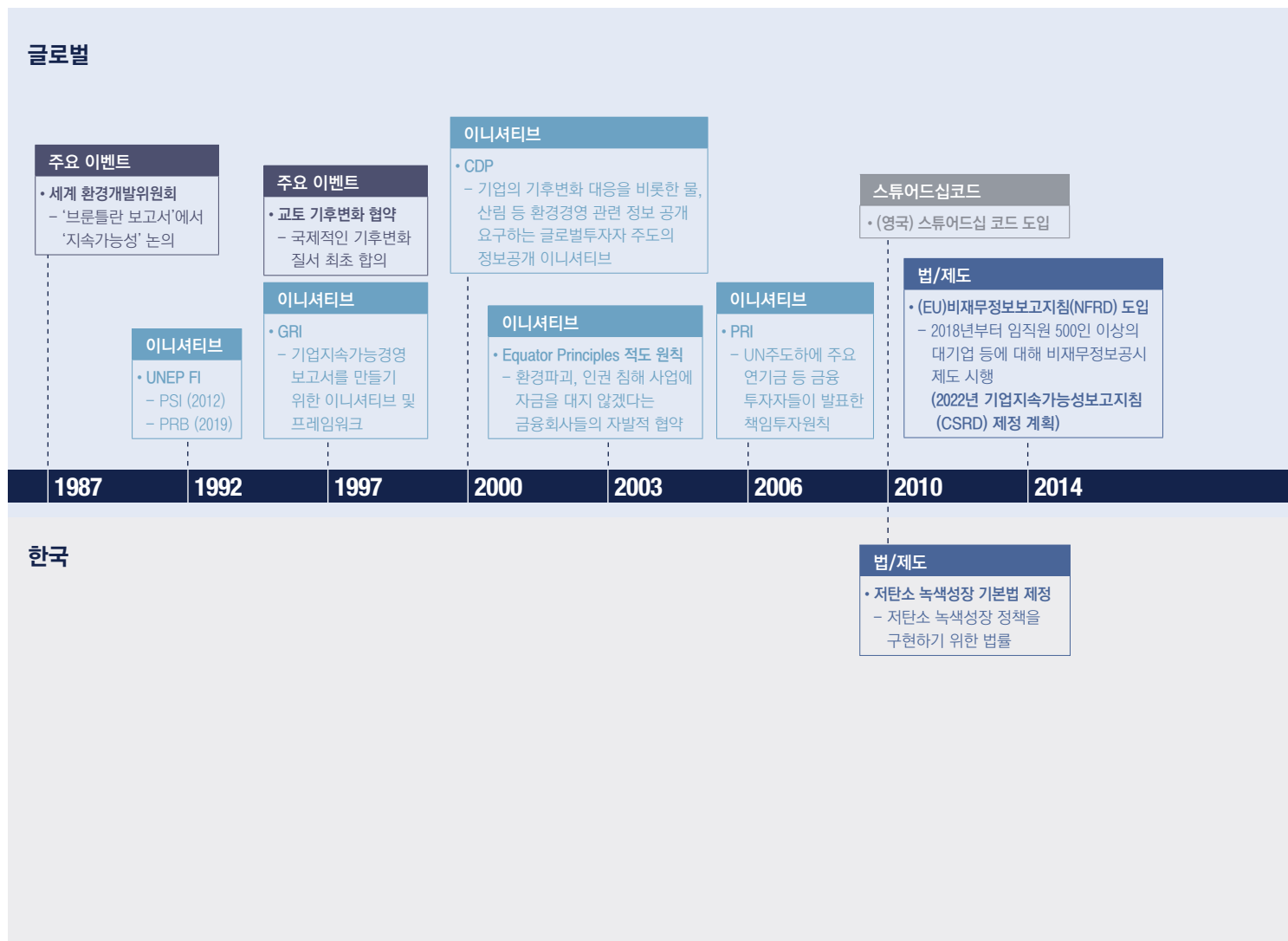
ESG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

ESG의 파도가 매우 높다. 전 세계가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그리고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ESG가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대이동이 없는 사회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ESG 금융은 전환을 위한 핵심 동력이며, 구체적으로는 기후금융을 포함한 녹색금융과 포용금융의 방식으로 외화(外化)되고 있다.

EU가 2018년 발표한 '지속가능금융액션플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ESG 금융의 동향과 방향, 그리고 과제들을 대부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U의 지속가능금융액션플랜은 △지속가능한 경제로 자본의 흐름 재조정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리스크 관리의 핵심에 반영 △금융의 투명성과 장기주의 확산한다는 3대 축을 중심으로 법·제도 패키지 성격의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 하고 있다. 녹색과 사회영역에서의 분류체계(Taxonomy) 개발과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스튜어드십 코드 등 수탁자 책무 강화,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와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EU는 2024년까지 기업의 재무정보와 ESG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인 ESAP(European Single Access Point)도 설립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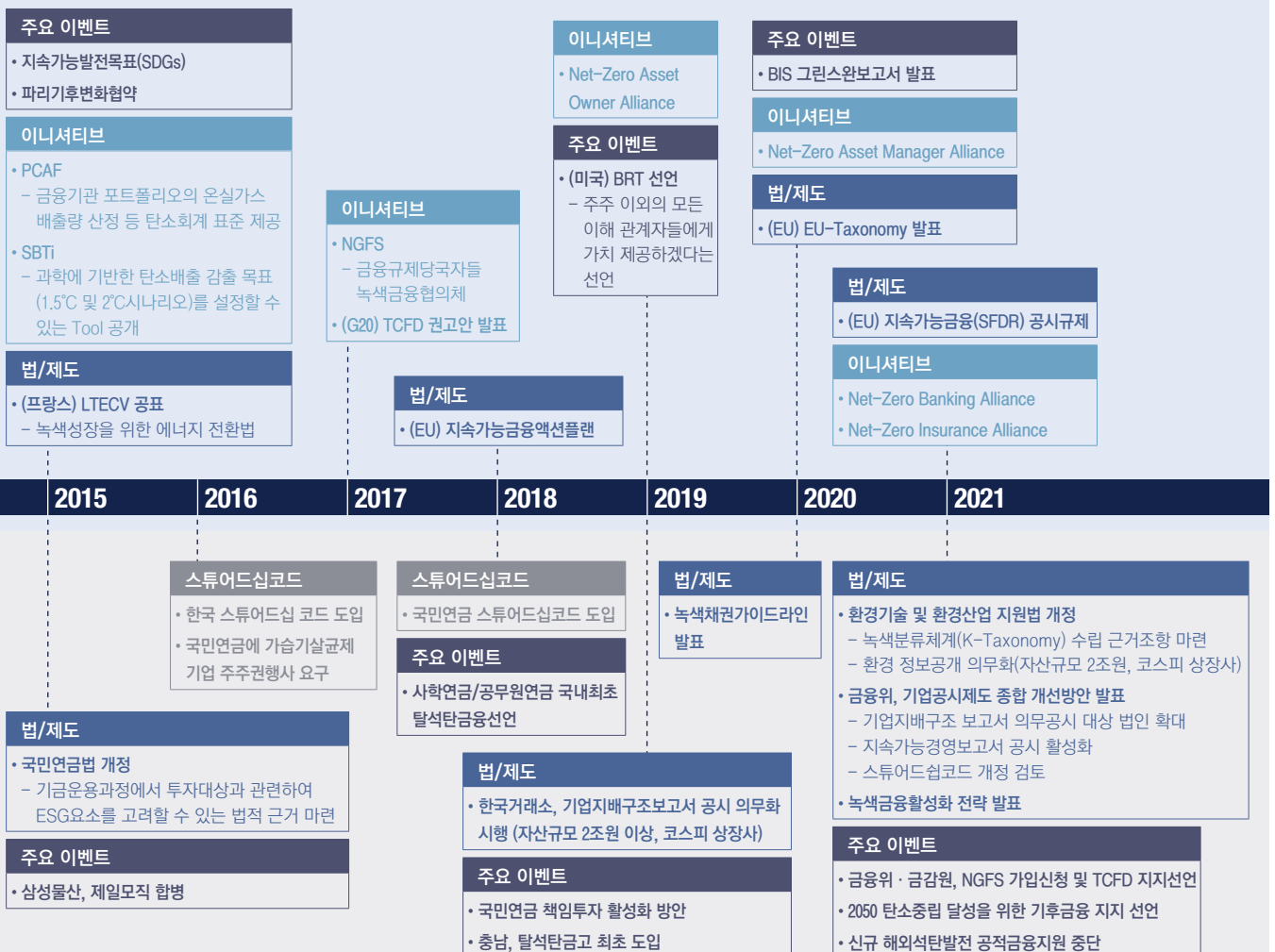
ESG금융 마일스톤



현재 ESG 금융을 주도하는 이슈는 기후변화다.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CDP의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인 TCFD를 탄생시켰고, 금융 규제 당국자들의 녹색금융협의체인 NGFS도 출범시켰다.

지구평균기온 상승 1.5도씨 제한을 위한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자,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은 투자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금융업권별 넷제로(Net-Zero)이니셔티브, 과학기반목표시나리오(SBTi), 탄소회계금융파트너십(PCAF) 등에 금융기관의 가입과 활동 증가는 그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우리나라에서 ESG 금융은 전통적으로 국민연금의 ESG 투자에 집중되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금융이 본격화 되면서 주목을 받고 영역 또한 넓어지기 시작했다. 탈석탄 금융기관은 2018년 최초 선언 이후 현재 101개 에 달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에 112개 기관의 참여는 ESG 금융 확산 속도를 가속화했다. 정부는 올해 1월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ESG 금융 생태계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글로벌에 비해 너무 늦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ESG 정보공개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2021년 내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발표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강화하여 올해 제정할 예정이다.



ESG금융 현황 분석

한국 ESG금융 규모

492조원

국내 ESG금융 규모

2020년말 기준, ESG금융 규모는 492조원이었다. 금융상품 유형별로는 ESG대출이 184조원, ESG투자가 188조원, ESG금융상품은 62조원, ESG채권발행은 59조원이다. E·S·G이슈별로는 환경(E)이 72조원, 사회(S)가 219조원, 지배구조(G)는 0.2조원, ESG통합은 201조원이다.

ESG열풍이다. ESG는 금융기관이 투자대상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다. 국내 금융기관도 최근 ESG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국내 금융기관의 ESG금융 활동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본 보고서는 국내 최초로 전체 금융기관의 ESG금융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했다. 아직 ESG금융의 '정의', '분류' 등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ESG금융 활동에 대한 우열 및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ESG금융 현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이에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ESG금융에 대한 별도의 '정의' 및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개별 금융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그 판단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문지를 구성했다. ESG채권발행 및 ESG상품의 경우, 중복계상의 우려가 있으나,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이를 지속가능보고서 등에 보고하고 있어 본 보고서 및 설문에도 포함했다.

2020년말 기준, ESG금융 규모는 492조원으로 2017년 대비 242% 성장했다. 금융활동 유형별로는 ESG투자 188조원, ESG대출 184조원, 금융상품 62조원, ESG채권발행(2020년 발행액 기준) 59조원이다. 최근 5년간 모든

ESG금융 유형 분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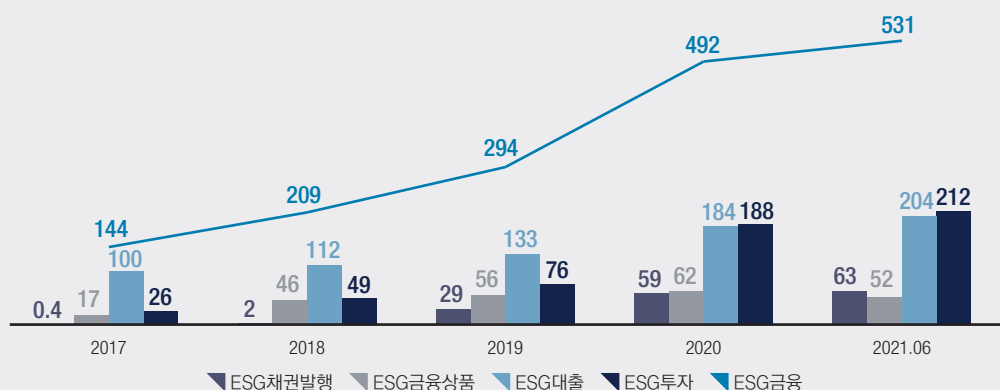
| 유형 | 세부내용 |
|-------------------|--|
| ESG대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대출 기업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
| ESG투자 (사회책임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군별 : 주식 / 채권 / 대체투자 지역별 : 국내 / 해외 |
| ESG금융상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 : 원수보험료 예/적금 : 수신금액 카드 : 카드 사용액 펀드(리테일) : 펀드 판매액 |
| ESG채권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기관 : 금융권 / 비금융권 발행유형 : 녹색 / 사회적 / 지속가능채권 채권발행금액 |

금융유형이 두 배이상의 성장을 보였으며, ESG투자 및 ESG채권발행의 성장속도가 가팔랐다.

ESG대출은 기업대출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147조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금융,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된 대출이 많았다. ESG투자는 국민연금이 전체의 54%(101조원)를 차지했으며, 국민연금이 ESG투자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2019년부터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ESG금융상품은 예·적금의 비중이 64%(39조원)를 차지했으며, NH농협은행의 “NH더하고 나눔정기예금”이 32조원이었다. ESG채권발행은 사회

연도별 ESG금융유형 규모 추이^{1,2,3}

(단위: 조원)



1. 대한행정공제회의 2020년, 2021년 자료는 2019년 자료 기반
2. 국민연금의 2021년 자료는 2021년 4월말 기준
3. 2021년 7월말 기준

적채권의 규모가 전체 85%를 차지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민간금융기관의 주택저당채권 구매, MBS발행을 위한 지급보증 등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발행한 사회적채권(43조원)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ESG이슈별로는 환경(E)이 72조원, 사회(S)가 219조원, 지배구조(G)는 0.2조원, ESG통합은 201조원이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사회(44%)가 환경(15%)에 세 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사회(S)관련 ESG대출규모(129조원, 70%)가 매우 컸다. 채권발행에서도 사회(S) 비중이 컸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43조원 규모 사회적채권발행의 영향으로 보인다. ESG투자는

투자대상기업의 ESG성적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ESG통합의 대부분은 ESG투자 영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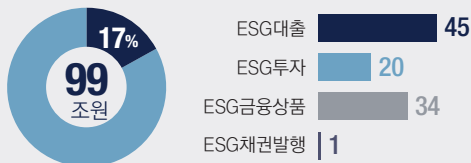
금융권을 공적과 민간으로 구분하면, 민간금융이 270조원으로 55%를 차지했다. 민간금융을 금융그룹 별로 비교해보면,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1,2}이 나머지 3개 주요 금융그룹(신한, 하나, KB)에 비해 확연히 높은 규모를 보였다. 특히,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사회(S)로 분류된 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은행과 비교할 때 최대 10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농협금융그룹의 경우, ESG투자(ESG채권투자: 농협중앙회 10조원, NH농협은행 6조원)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1. 농협금융그룹은 민간으로 분류
2.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그룹 포함

5대 금융그룹 및 주요 공적금융기관의 자산대비 ESG금융 비중 및 금융유형별 규모

(단위: 조원)

농협금융그룹(8)



우리금융그룹(6)



KB금융그룹(7)



하나금융그룹(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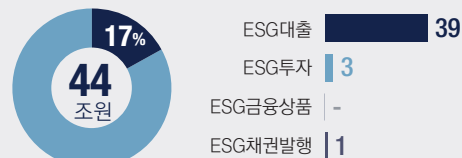
신한금융그룹(8)



국민연금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ESG금융 현황 분석

ESG금융 목표

32개 금융기관이 ESG 금융목표를 수립했다. 5대 금융그룹은 모두 그룹차원의 목표를 보고했으며, 주요 국책은행 및 공적연기금 가운데서는 국민연금기금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방금융그룹 중 그룹차원의 목표를 보고한 곳은 전무했다.

32개

ESG금융 목표 수립 기관 수

공적 5개
민간 27개

목표수립 기준 상이, 연간 금액기준으로 환산하면 신한금융 가장 높아

금융기관별로 목표를 설정한 기준이 상이하여, 목표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연평균 신규자금 투입액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신한금융그룹이 25조 원내외로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ESG관련 경제활동으로 투입되는 미래 자금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금융기관의 ESG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표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5대 금융그룹 모두 ESG 금융목표 수립

국내 5대 금융그룹은 모두 ESG금융목표를 보고했다. KB, 우리,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의 목표를 보고했으며, 신한과 농협은 각각 2023년, 2021년까지의 목표를 보고했다. KB를 제외한 4개 금융그룹은 신규 투입자금을 누적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수립했으며, KB는 2030년 잔액 기준의 목표를 보고했다. 또한 하나와 우리금융은 각각 25조원과 10조원규모의 ESG채권발행액을 목표에 포함했으며, 나머지 그룹은 채권발행액은 포함하지 않았다.¹

주요 공적금융기관 가운데서는 국민연금만 구체적 목표 수치 없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주요국책은행은 모두 ESG금융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금융목표에 사회(S)를 포함한 기관은 없었으며, 모두 환경 또는 그린뉴딜에 집중하고 있었다.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신규 투입자금을 누적하는 방식의 목표를 보고했으며, 산업은행은 2030년 시점의 당해연도 자금투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목표를 보고했다. 2020년 목표수준(8.7조)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누적금액은 100조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목표금액은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자산군별 책임투자 적용 방식 및 적용 시점에 대한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자산군별 책임투자 적용 비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보험사 가운데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장 높은 수준의 ESG금융 목표를 보고했다.

5대 금융그룹 및 주요 공적금융기관 ESG금융 목표

목표연도

2030

| | 2020 AUM 대비 비중 | 목표 금액 |
|---------------------|----------------|-------|
| KB금융그룹 ² | 9.52% | 50조원 |
| 우리금융그룹 | 27.90% | 100조원 |
| 하나금융그룹 | 14.67% | 60조원 |
| 한국산업은행 ³ | 5.24% | 13조원 |
| 한국수출입은행 | 184% | 180조원 |

2025

| | | |
|--------|-------|------|
| 중소기업은행 | 3.57% | 11조원 |
|--------|-------|------|

2023

| | | |
|--------|--------|------|
| 신한금융그룹 | 16.25% | 79조원 |
|--------|--------|------|

2022

| | | |
|--------|----------|--|
| 국민연금기금 | 목표수치 미보고 | |
|--------|----------|--|

2021

| | | |
|--------|-------|-----|
| 농협금융그룹 | 0.37% | 2조원 |
|--------|-------|-----|

1. 금융기관의 ESG채권 발행액은 대부분 대출이나 투자에 활용되므로 중복계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2. 2030년 잔액기준
3. 2030년 당해연도 투입금액 기준

개별 ESG금융 목표수립 기관

| | 금융기관명 | 목표연도 | 2020 AUM 대비 비중 | 목표금액 |
|---------|-----------------------|------|----------------|---------|
| 공적 | 한국산업은행 ¹ | 2030 | 5.24% | 13.20조원 |
| | 한국수출입은행 | 2030 | 184% | 180조원 |
| | 중소기업은행 | 2025 | 3.57% | 11.95조원 |
| | 공무원연금기금 ² | 2021 | 5.52% | 0.45조원 |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2021 | 0.97% | 0.03조원 |
| 은행 | 하나은행 | 2030 | 7.42% | 28조원 |
| | KB국민은행 | 2023 | 5.69% | 24조원 |
| | 신한은행 | 2021 | 5.01% | 19.86조원 |
| | NH농협은행 | 2021 | 0.40% | 1.34조원 |
| 생명보험 | 미래에셋생명 | 2031 | 0.51% | 0.3조원 |
| | 삼성생명 | 2030 | 6.46% | 20조원 |
| | 농협생명 | 2021 | 0.30% | 0.2조원 |
| | KB생명 | 2021 | 2.56% | 0.27조원 |
| 손해보험 | 삼성화재 | 2030 | 14.72% | 13.5조원 |
| | KB손해보험 | 2023 | 2.66% | 1조원 |
| | 농협손해보험 | 2021 | 1.11% | 0.1조원 |
| 증권사 | 미래에셋증권 | 2025 | 11.98% | 10조원 |
| | KB증권 | 2023 | 2.44% | 1.34조원 |
| | SK증권 | 2022 | 0.14% | 0.01조원 |
| | 메리츠증권 | 2021 | 1.42% | 0.50조원 |
| | NH투자증권 | 2021 | 0.31% | 0.19조원 |
| | 신한금융투자 | 2021 | 1.13% | 0.18조원 |
| NH하이BNK | NH-Amundi자산운용 | 2025 | 14.34% | 6.5조원 |
| | BNK자산운용 | 2021 | 183.49% | 0.21조원 |
| | 하이자산운용 ^{3,4} | 2021 | — | 0.18조원 |

1. 2030년 당해연도 투입금액 기준
2. ESG금융목표액을 해당시점 ESG주식, 채권 평가 금액으로 설정하여 응답
3. 구 DGB자산운용
4. 2020 AUM 확인 불가로 비중 확인 불가

- ESG금융 목표 수립했다고 응답했으나 목표금액 미 제출 기관
- 교보약사자산운용, 삼성증권, 우리자산운용,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DB금융투자, IBK연금보험

ESG금융 현황 분석

ESG대출

ESG투자과 더불어, 최근 ESG금융을 이끌고 있는 것은 대출영역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초로 진행된 이번 조사를 통해, ESG대출규모는 18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ESG투자과 달리, ESG대출 관련 체계는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향후 그 규모에 걸맞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4조원

ESG대출 규모¹

대출은 대출대상에 따라 개인대출, 기업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으로 구분할 수 있다. PF는 해당 프로젝트의 미래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의미하며, 기업대출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운영자금대출과 특정 시설의 투자를 위한 시설자금대출로 구분된다.

ESG대출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시설투자 목적의 대출뿐만 아니라 대출심사에 ESG 요소를 반영 또는 ESG관련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포괄한다. 2020년말 기준, ESG대출 규모는 약 184조원으로, 2019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이 가운데 기업대출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147조원, PF와 개인대출이 각각 20조원, 17조원으로 기업대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향후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ESG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이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1.5°C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한 스트레스 테스트² 결과에 의하면, 기후변화 이행리스크로 인한 한국경제의 2050년 기준 GDP 손실규모는 최대 7.4%(연평균 0.2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른, 고탄소 산업의 부도율 상승 및 주가하락으로 국내은행의 BIS비율도 2050년 최대 5.8%(연평균 0.19%)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 |
|------|-----------|
| 기업대출 | 147.26 조원 |
| PF | 19.72 조원 |
| 개인대출 | 16.86 조원 |

ESG대출 유형 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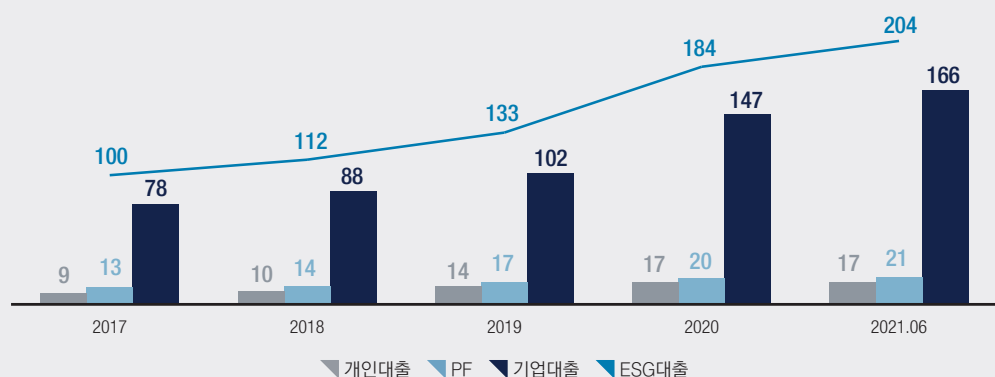
| 유형 | 사례 |
|------|--|
| 개인대출 | 그린리모델링대출 / 친환경차구매대출 / 청년전세자금대출 / 사잇돌중금리대출 |
| 기업대출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대출 / 녹색업종 영위 기업대출 / 일자리창출기업대출 / 코로나19 금융지원 |
| PF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 고속도로, 학교 등 사회인프라 구축사업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 수립을 발표했다. 이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기후리스크관리 시스템 도입 준비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향후 대출심사 과정 전반에 기후변화 리스크 반영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ESG금융정책이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우선 구축

연도별 ESG대출규모 추이

(단위: 조원)



1. 2020년말 기준

2. 출처: 한국은행 (2021), 금융안정보고서 -참고7. 기후변화 이행리스크를 고려한 은행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된 후, 기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이슈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해외 추세를 고려하면, 한국도 유사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2018년 지속가능금융액션플랜을 발표한 후 기후 금융 관련 제도화를 우선 추진하고, 이를 ESG 전반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 금융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분류체계의 경우, 녹색분류체계 도입을 먼저 진행하고, 올해 7월 사회분류체계 초안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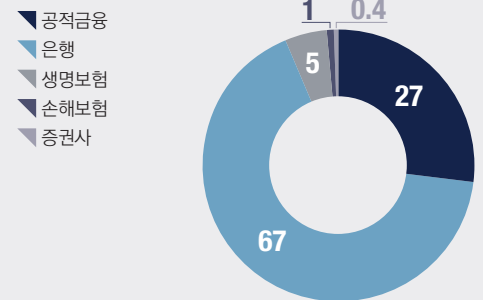
국내에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오너일가의 갑질, 횡령 등 사회 및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 대해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지배구조를 대출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제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S)관련 ESG대출 비중 절대적으로 높아

ESG대출을 영역별로 구분하면, 사회 70%, 환경 30%, 지배구조 0.01%로 사회 비중이 매우 높았다. 특히 민간은행의 사회, 환경 비율은 각각 84%, 16%인 반면, 나머지 섹터의 평균 비율은 43%, 52%로 민간은행의 사회영역 대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대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사회(S)관련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총 54조원 규모의 ESG대출을 보고했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는 50조원이 사회(S)영역과 관련된 대출이었다. NH농협은행도 사회(S) 비중이 85%(37조원)에 달했

금융섹터별 ESG대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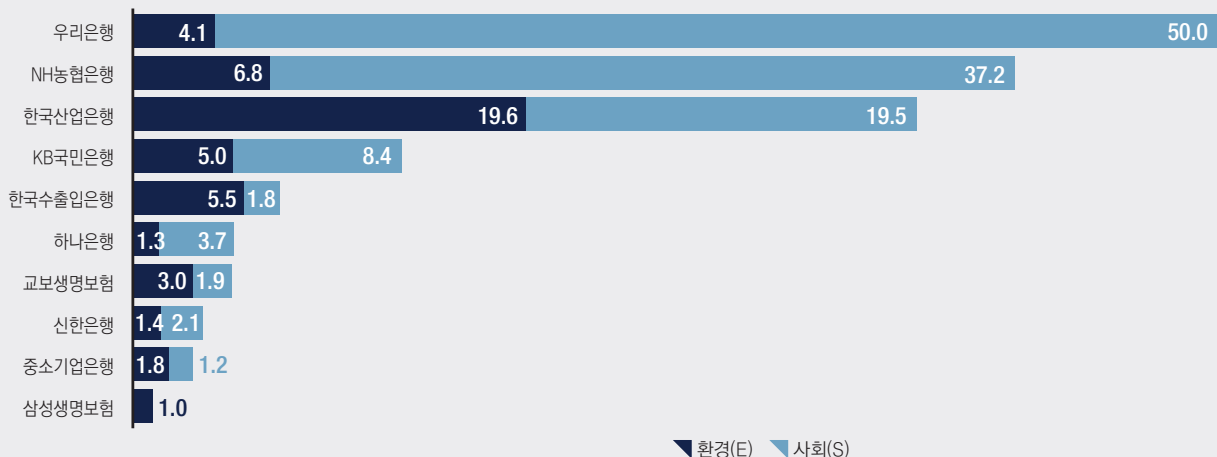
다. 반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경우, 환경(E)관련 대출이 사회(S)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E)영역의 총 대출액은 51조원으로, 기업대출이 42조원(83.5%), PF가 8조원(16%), 개인대출이 2천억원(0.5%) 이었다. 탄소중립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참여가 요구되는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다. 그린리모델링, 친환경차 구매와 같은 개인 대출의 필요해 보인다.

사회(S)영역의 총 대출액은 129조원으로, 기업대출이 105조원(81%), 개인대출이 17조원(13%), PF가 7조원(6%) 이었다. 기술금융(46조원), 서민금융(21조원), 보건·공공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기업 지원(19조원), 코로나19 지원(10조원),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10조원) 등이 보고되었다. 지배구조(G)영역은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금융 1건이 보고되었다.

금융기관별 ESG대출 규모

(단위: 조원)



사회분류체계(Social Taxonomy) 필요성 확인

최근 ESG금융의 화두는 기후변화이다. 하지만 실제 ESG대출 규모는 사회(S)가 환경(E)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 녹색분류체계뿐만 아니라 사회(S)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함이 드러났다. 금융기관은 사회(S)관련 대출 분류를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사회적채권원칙(SBP),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거나 자체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보고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ESG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 드는 대출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이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사회(S)관련 분류체계가 각 활동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도 하나의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사회(S)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ICMA의 사회적채권원칙(SBP)이나 UN SDGs는 “접근가능한 사회인프라(Affordable basic Infrastructure)”, “사회경제적 발전과 기반 지원(Socioeconomic advancement and empowerment)”과 같이 광범위한 분야만을 제시할 뿐이다. 녹색활동에 대한 세부 분류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주지 않을 원칙(Do Not Significantly Harm, DNSH)”, 인권, 노동 등 다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Safeguard)”를 두고 있는 녹색분류체계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실제 일부 금융기관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과 같이 환경적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사회발전지원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기도 했다.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ESG워싱¹에 대한 우

ESG대출 (적용)분류체계 유형

| 분류체계 명 | |
|--------|--------------------|
| 환경 | EU 분류체계 |
| | ICMA 녹색채권원칙(GBP) |
| | CBI 기후채권표준(CBS) |
| | 환경부 녹색채권가이드라인(GBG) |
| |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 |
| 사회 | ICMA 사회적채권원칙(SBP) |
| |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사회영역에서도 ESG 금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배구조(G)이슈 반영 방안 고민해야

본 조사에서 지배구조 관련 대출로 보고된 건은 1건에 불과했다. 지배구조는 피대출기업의 경쟁력과 중장기적 상환능력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출 시에도 지배구조이슈를 반영하여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주가 아닌 대출실행기관 입장에서 기업 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요구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인수금융과 같이 피인수기업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 대출을 제공하는 특수한 경우, 금융제공기관으로 충분히 지배구조와 관련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인수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는 해당 기업의 상환능력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인수금융제공 조건의 하나로 지배구조 개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ESG워싱: ESG경영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보다 과장해 포장하는 기만적 마케팅 수법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사회적채권원칙(SBP)분류체계 세부항목

| 사회프로젝트 카테고리 | 대상Target population |
|---|--|
| <p>다음은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이 용이한 사회인프라 시설 예시) 깨끗한 식수, 하수도, 위생설비, 수송기관, 에너지 필요 서비스에의 접근성 예시) 건강, 교육 및 직업 훈련, 의료, 자금 조달 및 금융 서비스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 중고, 중견기업 대출 및 소액금융 지원 등을 통한 고용 창출 식품 안전성 예시) 식생활 요구와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품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및 경제적 접근. 탄력적인 농업 관행,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소, 소규모 생산자의 생산성 향상 사회경제적 발전과 그 기반 지원 예시) 자산, 서비스, 자원 및 기회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통제; 소득 불평등의 감소를 포함한 시장 및 사회에 대한 공정한 참여 및 통합 | <p>다음은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 소외 및/또는 소외계층 커뮤니티 장애인 이민자 및/또는 난민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서비스 소외자 실업자 여성 그리고/또는 성적 및 성 소수자 고령층과 청년 취약계층 자연재해 피해를 포함한 기타 취약계층 |

ESG금융 현황 분석

ESG투자(사회책임투자)

그 동안 국내 ESG투자 또는 사회책임투자(이하 ESG투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적연기금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등 민간 금융기관의 ESG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2020년말 ESG투자 규모는 188조원이었으며, 민간금융기관이 37%(70조원)를 차지하고 있었다.

4,482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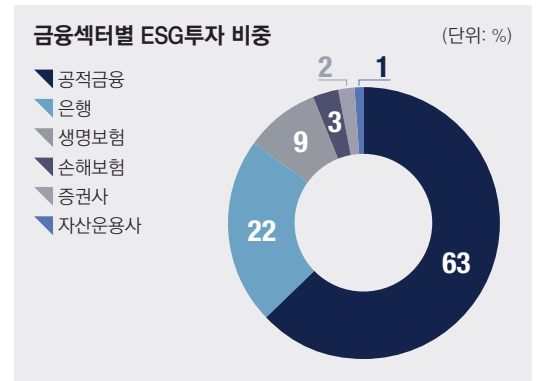
글로벌ESG투자 규모

지금까지 ESG투자는 공적금융기관과 공모펀드에 한정해 그 규모를 파악해 왔다. 본 조사는 국내 최초로 민간 금융권의 ESG투자규모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SG투자는 투자의사결정과정에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를 말한다. ESG투자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대체투자 등 모든 투자자산군에 적용 가능하다.

2020년 기준, 글로벌 ESG투자 규모는 35조 3,000억 달러(약 4,482조 400억원)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동안 글로벌에 비해 뒤쳐져 있던 국내 ESG투자도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ESG투자규모(2020년 기준)는 약 188조원으로, 2017년 대비 6배 이상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국민연금의 ESG투자 활성화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나,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도 작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금융의 총 ESG투자규모는 70조원이었으며, 은행과 보험사이 각각 42조원, 22조원이었다. 자산운용사의 ESG투자 규모는 2.3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운용 자산의 중복계상을 막기 위해, 본 조사에서 자산운용사가 수탁 받아 운용하는 자산은 전체 ESG투자 규모 산정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투자자산군 유형별로는 주식(57%), 채권(35%), 대체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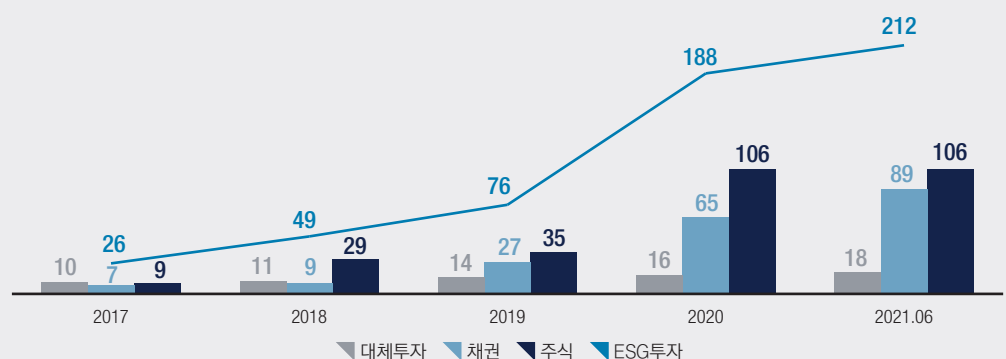
| | |
|------|-----------|
| 주식 | 106.44 조원 |
| 채권 | 64.84 조원 |
| 대체투자 | 16.30 조원 |



자(9%) 순이었다. 공적연기금의 경우, 주식 비중(88%)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주식에만 ESG투자를 적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간금융권의 경우, 채권과 대체투자 자산을 위주로 ESG투자를 적용하고 있었다(은행: 채권 97%, 보험사: 채권 41% / 대체투자 58%). 일반적으로 국내 은행과 보험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SG투

연도별 ESG투자규모 추이^{2,3}

(단위: 조원)



1. 대체투자: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유형의 투자자산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투자대상으로는 부동산, SOC 등이 있음
2. 국민연금의 경우 2021년 4월말 기준 금액 적용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2019년 말 금액을 2020년도말과 2021년 6월 말 기준에 적용

자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민간금융기관의 ESG투자 규모는 농협중앙회(11조원), KB국민은행(9조원), NH농협은행(6조원), 하나은행(5조원)으로 은행권의 비중이 높았다. 비은행권에서는 교보생명(4.5조원), 삼성생명(3.3조원) 순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국민연금의 2020년 기준 운용자산규모는 833조원이며,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금액은 총 503조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금액은 128조원에 이른다. 직접투자금액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관련 체계는 정책의사결정을 맡고 있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기금운용위원회”와 이행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2022년까지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책임투자를 확대하는 계획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그 후 국민연금의 책임투자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는 국내 주식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이 수탁자책임실의 지원을 받아 직접 운용하는 금액이 전체의 92%(93조원)이며, 나머지 8조원은 자산운용사에 책임투자형으로 위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책임투자 규모를

전체자산의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ESG투자 생태계 조성에는 여전히 무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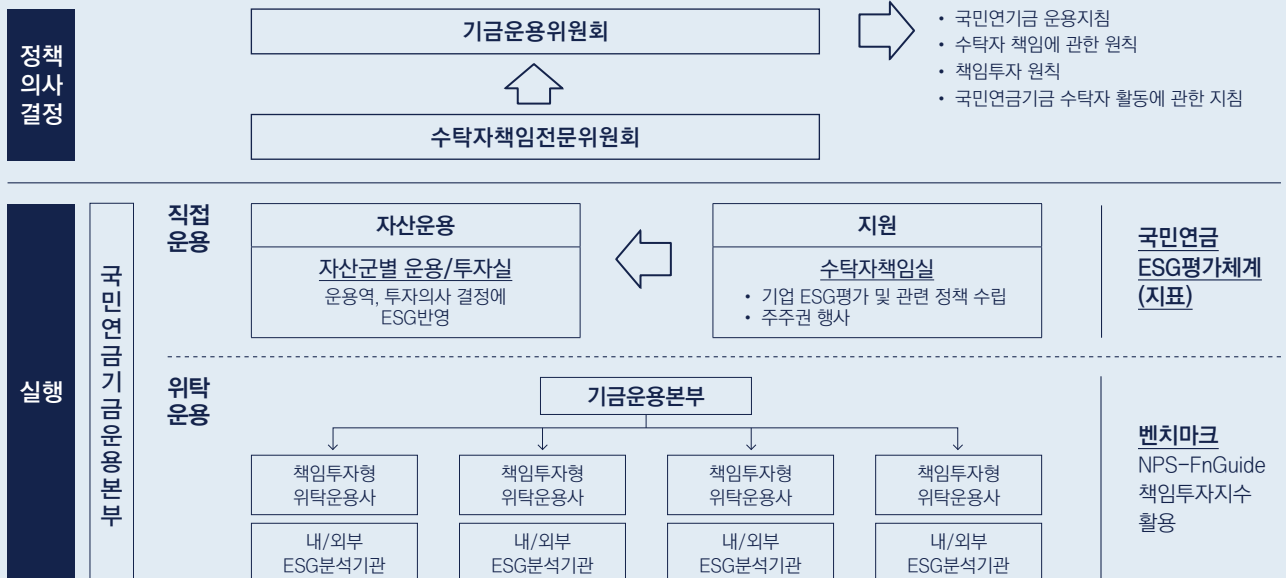
국민연금의 ESG투자는 최근 빠른 속도의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ESG정보공개에 대한 역할 부재이다. 기업의 ESG정보는 ESG투자의 핵심이다. 노르웨이연기금, 블랙록과 같은 해외연기금 및 운용사는 적극적으로 기업에 기후변화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세계 3대연기금 가운데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가장 소극적 형태인 TCFD 지시기관 및 CDP서명기관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국내 최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기업의 ESG정보공개 요구에 나서지 않는다면, ESG투자 확대를 선언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위탁운용의 위축 또는 더딘 성장이다. 국민연금의 전체 책임투자규모는 2017년 대비 1,373% 성장했으나, 동 기간 책임투자형 위탁운용규모는 고작 16% 성장했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은 그 동안 국내 ESG투자시장 전체를 이끌어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다수의 민간자산운용사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형 위탁펀드 운용을 목표로 ESG공모펀드 개발, ESG평가사와 협력 등을 진행해 왔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위탁운용이 지금과 같은 더딘 성장을 이어간다면, 국내 ESG투자 시스템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 농협중앙회는 민간금융기관의 은행
섹터로 분류

국민연금 책임투자 정책의사결정 및 투자 구조



ESG금융 현황 분석

ESG공모펀드(사회책임투자 공모펀드)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모으는 펀드로 대표적인 간접상품이다. 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한다. 때문에 ESG공모펀드 즉, SRI공모펀드(사회책임투자 공모펀드)규모 추이는 ESG가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는 물론 일반대중에게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모닝스타 코리아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3,456

억원

ESG 공모펀드
신규 설정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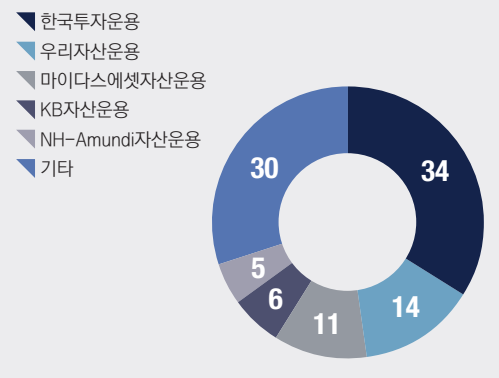
ESG공모펀드 규모, 전년 대비 7배 급증

우리나라의 ESG공모펀드의 시장규모는 2020년말 기준 3조81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4,145억 원이던 2019년 말 규모에 비하여 무려 7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우선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ESG열풍이 우리나라 공모펀드에도 반영되고 있고, 더 직접적으로는 국민연금의 ESG 행보 가속화에 따른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8년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스코드 가입, 2019년 11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등 로드맵 제시는 공모펀드 상품을 출시하는 자산운용사에 적지 않은 신호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제시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중 책임투자 적용자산과 규모 확대, 그리고 위탁운용사 선정 시 책임투자 요소 고려, 책임투자 위탁펀드 책임투자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위탁운용 책임투자 내실화 정책은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ESG공모펀드 출시를 자극했고, 펀드 가입자의 ESG공모펀드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ESG공모 규모 비중은 1%대로 여전히 미미

ESG공모펀드 규모의 급증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공모펀드 규모 대비 ESG공모펀드 규모 비중도 늘었다. 2017년 0.2%, 2018년 0.3%, 2019년 0.2%, 2020년 1.1%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그러나 ESG공모펀드 비중은 1%에 불과할 만큼 미미하다. 이는 ESG펀드가 국내에서는 여전히 초기단계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글

자산운용사별 ESG공모펀드 시장 점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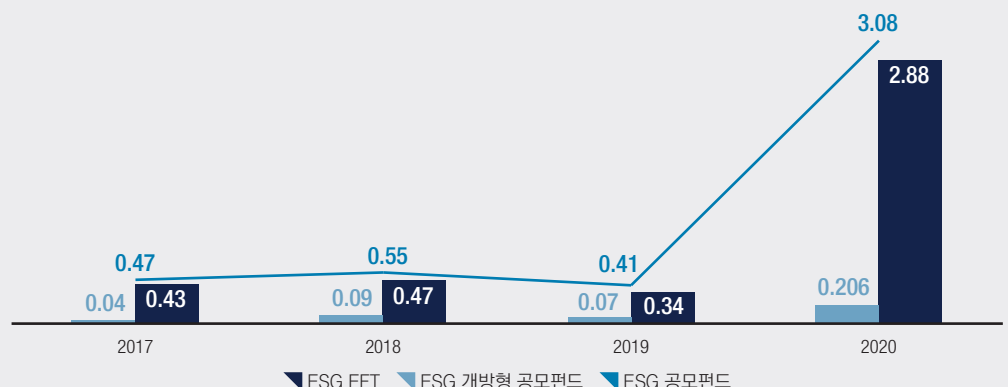
로벌적인 ESG열풍과 국내의 관심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확산되기까지는 다양한 정책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SG공모펀드 자산운용사별 점유율

ESG공모펀드는 2020년말 기준 31개 운용사가 84개 펀드(OE, ETF포함)를 출시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산운용사별 ESG공모펀드 시장 점유율(자산운용사 NAV 기준)을 분석해보면, 한투자자산운용이 34.3%로 가장 높았고, 우리자산운용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각각 13.6%, 11.1%를 차지하여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한투자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이 기존의 채권형 펀드를 ESG로 전략 변경하면서 점유율이 급상승했다. 마이다

연도별 국내 ESG공모펀드 시장규모 추이

(단위: 조원)



스에셋자산운용은 2009년 '마이다스책임투자주식형펀드'로 책임투자 분야에서 오랜 업력과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자산운용사가 ESG공모펀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상품을 확대하거나 준비하고 있어 향후 시장 판도의 변화 가능성도 있다.

신규 ESG공모펀드와 유형별 현황

2020년에 신규로 설정된 펀드는 12개로 모두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후 환매청구를 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다. 운용규모는 2020년말 기준 약 3,45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12개 펀드 중 5개가 채권형 펀드로, 그동안 주식 일변도였던 ESG공모펀드 시장에서 채권형 ESG공모펀드가 늘어나 채권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가능해졌다.

ESG공모펀드는 2014년까지는 클린에너지나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환경 관련 펀드가 주를 이루었고, 2017년부터는 ESG에 특화된 인덱스를 이용한 ETF상품 출시가 증가했다. 2018년부터는 ESG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는 펀드가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자산운용사가 정부 정책에 맞추어 환경,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등 테마에 집중된 상품을 출시해 왔다면,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여전히 정책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ESG에 보다 근본적인 천착을 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ESG공모펀드 상품 출시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 보면, 2020년 말 기준 한국채권형 비중이 33.7%로 32.7%인 한국대형주를 앞질렀다. 한국대형주는 2019년 말에는 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지각변동은 채권형 ESG공모펀드의 신규 설정과 기존 펀드가 ESG로 전략 변경에 따른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모닝스타 등급(스타등급)별 현황

모닝스타가 ESG공모펀드 중 3년 스타등급을 받은 220개 공모펀드(클래스 수준)를 대상으로 스타등급 분포를 분석한 결과, ESG공모펀드의 스타등급 분포와 스타등급 정규분포를 비교하면, ESG공모펀드의 스타등급이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SG공모펀드의 리스크조정수익률이 같은 유형에 있는 일반 공모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리스크조정수익률 관점에서 ESG공모펀드의 성과는 최근 몇 년간 개선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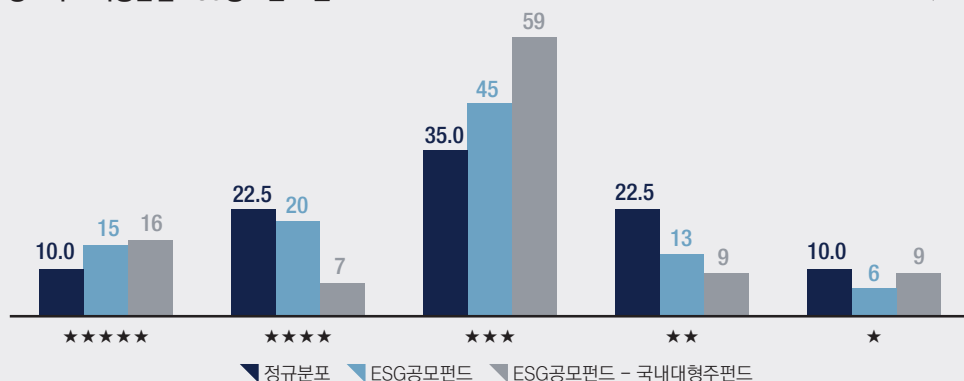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대형주펀드(집계대상 122개 클래스펀드)를 대상으로 했을 때, 4-스타 비중은 낮았으나 전반적으로 한국대형주 유형에서도 ESG공모펀드 등급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ESG공모펀드 활성화 : 국민연금 생태계 조성 역할 필요

우리나라 ESG공모펀드의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사실 지금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ESG고려투자나 ESG정보공개 의무화 등 법과 제도의 시스템이 국내외적으로 본격적으로 구비되고 있는 현재는 ESG공모펀드가 양질의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되고 있다. ESG 명확한 정의, ESG공모펀드 포트폴리오가 적합성, 즉 ESG 위상 우려 차단, 국내 주식형 ESG공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성과 개선을 위한 운용사의 비즈니스 전략, 장기투자 문화 조성 등 여러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ESG 위탁운용 비중을 단기적으로 대폭 늘려 자산운용사들의 관심을 먼저 높여야 한다. 이럴 경우, 자산운용사들은 위탁운용사가 되기 위한 노하우 축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ESG공모펀드를 다수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즉, 국민연금의 ESG 생태계 조성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모닝스타 스타등급별 ESG공모펀드 분포도¹

(단위: %)



1. 2020년말 기준

ESG금융 현황 분석

ESG금융 상품¹

국내 금융기관은 ESG관련 대출, 투자, 채권발행뿐만 아니라, 보험, 예·적금 등과 같이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도 ESG금융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다수 금융기관은 ESG금융상품의 판매액을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했고, ESG목표 수립 시에도 반영하고 있었다.

ESG예·적금은 특정계층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ESG활동과 관련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의 판매 수익 중 일부를 ESG관련 활동 또는 단체에 기부하는 상품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고금리 적금상품, 종이통장 미발급고객 대상 우대금리 제공 예금상품,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국가유공자 지원하는 적금상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ESG예·적금 규모는 해당 상품의 예수금 총잔액을 의미한다.

ESG보험은 특정대상의 가입자나 가입자의 ESG관련 활동에 대한 보험료 감면 상품 및 보험상품의 판매 수익 중 일부를 기부하는 상품을 지칭한다. 또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계층 및 기업을 위해 보험사가 개발한 상품도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 상품, 고령자 가입 가능한 치매보험, 환경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ESG보험 규모는 해당 상품 가입자가 당해년도 납부한 보험료 총액(원수보험료)을 의미한다.

ESG카드는 카드사용자의 ESG관련 활동에 대해 마일리지 또는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상품을 지칭한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제품 구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그린카드가 이에 해당한다. ESG카드 규모는 해당상품의 당해년도 사용액을 의미한다.

ESG펀드(리테일)는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개

| | |
|---------|----------|
| 예/적금 | 39.36 조원 |
| 보험 | 14.54 조원 |
| 카드 | 2.92 조원 |
| 펀드(리테일) | 5.10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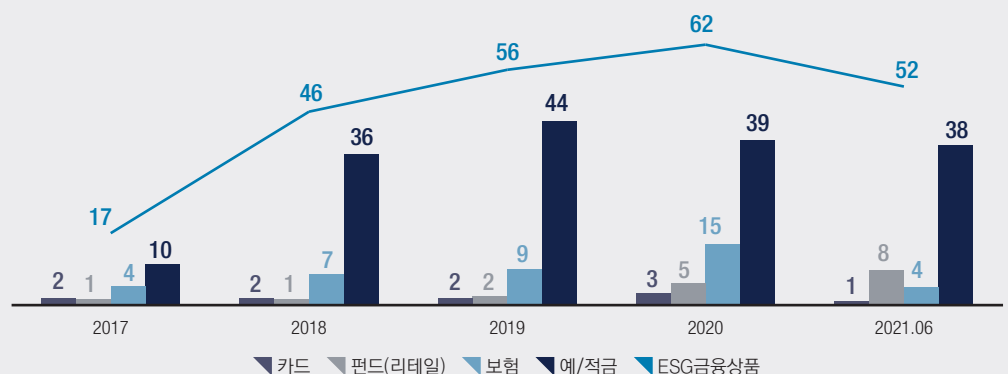
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한 공모/사모 ESG펀드를 지칭한다. ESG펀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펀드상품은 자산운용사에서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나, 고객과의 접점이 부족한 운용사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본 보고서의 ESG펀드(리테일)는 은행 및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판매한 ESG펀드 판매액 규모를 말한다.

2020년말 기준, ESG금융상품 규모는 약 62조원으로, 이 가운데 예·적금의 비중이 전체에 64%를 나타냈다. 특히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큰 폭의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NH농협은행이 출시한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의 수탁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예·적금은 사회(S), 보험과 카드는 환경(E) 비중 압도적
ESG금융상품을 ESG요소별로 구분하면, 사회(S) 64.1%, 환경(E) 30.2%, ESG통합 5.3%, 지배구조(G) 0.3%로 나

연도별 ESG금융상품규모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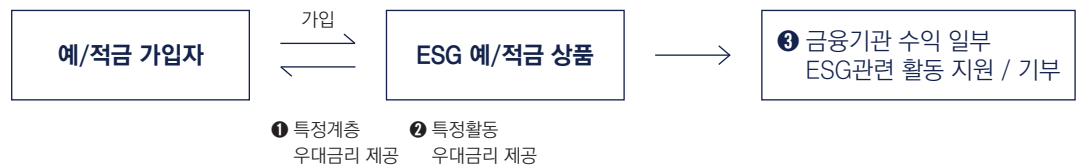


1. 본 보고서의 목적은 국내 금융기관의 ESG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에 'ESG금융상품'을 'ESG금융'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여부와 무관하게, 본 보고서를 위한 설문조사 및 분석에 포함했다.

ESG금융상품 유형별 세부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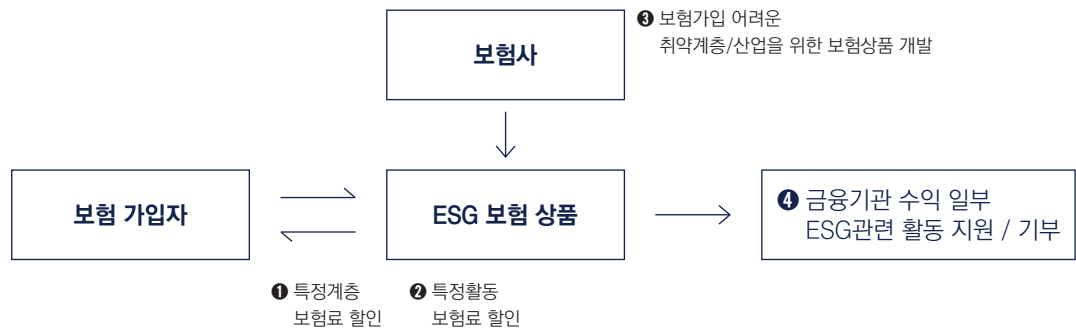
예·적금

예·적금을 통한 수익의 일부를 ESG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예·적금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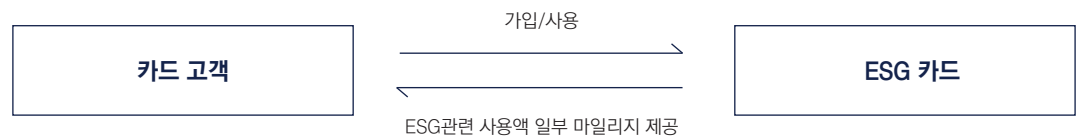
보험

보험료 수익의 일부를 ESG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보험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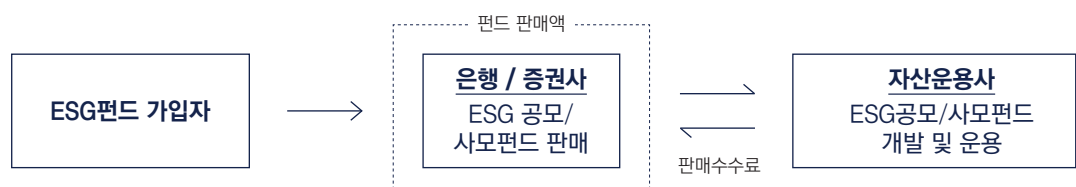
카드

ESG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카드 상품



펀드(리테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ESG펀드상품



타났다. 금융상품 유형별로는 예·적금 상품은 사회(S)가 98%인 반면, 보험과 카드의 경우, 환경(E)의 비중이 각각 96%, 82%로 가장 높았다. 펀드(리테일)상품은 ESG 통합과 환경(E)의 비중이 각각 62%, 30%로 나타났다. 이는 ESG예·적금은 사회취약계층 대상 금리우대 상품에, ESG보험은 주행거리 특약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그리고 ESG카드는 그린카드 상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ESG펀드(리테일)는 최근 테마펀드보다는 ESG통합전략을 적용하는 펀드의 판매가 우세하기 때문에 ESG통합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SG보험상품, 기여금액 가장 높아

본 보고서는 ESG금융상품의 판매규모와 함께 해당 상품을 통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가입자 또는 사회적 편익(이하 '직접기여금')을 조사했다. 예를 들어, 예·적금의 우대금리를 통해 가입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된 이자, 보험료 인하액 또는 상품수익을 활용한 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2020년 기준, 직접기여금 총액은 약 6,500억이었으며, 이 가운데 94%는 보험상품에서 발생했다. 특히, 주행거리 약정에 따른 보험료 할인액이 약 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ESG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는 가입자의 ESG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모호한 기준 하에서는 'ESG워싱'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가장 큰 영역이기도 하다. ESG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및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ESG금융상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조속히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SG예·적금 순위 및 주요 상품

(단위: 조원)

| 순위 | 기관명 | 규모 | 주요 상품 |
|----|--------|-------|-----------------------------|
| 1 | NH농협은행 | 32.30 |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 법사랑플러스 |
| 2 | 우리은행 | 3.69 | 시니어 플러스 우리예금, 우리 웰치100 연금통장 |
| 3 | 우정사업본부 | 2.11 | 이웃사랑정기예금, 우체국소상공인정기예금 |

ESG보험 순위 및 주요 상품

| 순위 | 기관명 | 규모 | 주요 상품 |
|----|--------|------|------------------------------------|
| 1 | DB손해보험 | 4.77 | 에버그린특약, 주행거리 특약 |
| 2 | 현대해상화재 | 3.32 | 품질인증부품사용 특약, Hicar Green 서비스 할인 특약 |
| 3 | 삼성화재 | 2.76 | ECO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

ESG카드 순위 및 주요 상품

| 순위 | 기관명 | 규모 | 주요 상품 |
|----|--------|------|----------------------|
| 1 | 우정사업본부 | 1.14 | 행복한 체크카드, 스타트 체크카드 등 |
| 2 | 부산은행 | 0.65 | 그린카드, 동백전 |
| 3 | 중소기업은행 | 0.47 | 그린체크, 그린카드V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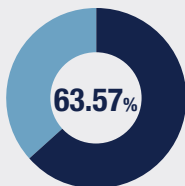
ESG펀드(리테일) 순위 및 주요 상품

| 순위 | 기관명 | 규모 | 주요 상품 |
|----|----------------|------|---|
| 1 | 신한자산운용 | 0.96 | 그린햇빛드림전문사모특별자산1호, 신한책임투자202011 |
| 2 | NH-Amundi 자산운용 | 0.83 | NH-Amundi책임투자1호(국민연금),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
| 3 | 미래에셋증권 | 0.63 | ETF(전기차), ETF(K-그린뉴딜) |

금융상품별 ESG 비중 및 ESG이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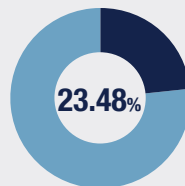
(단위: 조원)

예/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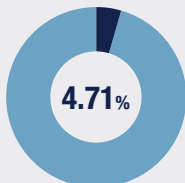
| | |
|---------|------|
| 환경(E) | 1 |
| 사회(S) | 38 |
| 지배구조(G) | 0 |
| ESG통합 | 0.04 |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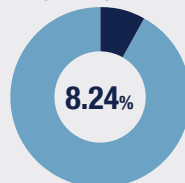
| | |
|---------|----|
| 환경(E) | 14 |
| 사회(S) | 1 |
| 지배구조(G) | 0 |
| ESG통합 | 0 |

카드



| | |
|---------|-----|
| 환경(E) | 2 |
| 사회(S) | 0.4 |
| 지배구조(G) | 0 |
| ESG통합 | 0.1 |

펀드(리테일)



| | |
|---------|-----|
| 환경(E) | 2 |
| 사회(S) | 0.2 |
| 지배구조(G) | 0.2 |
| ESG통합 | 3 |

ESG금융 현황 분석

ESG채권발행

전세계적으로 ESG채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20년 글로벌 ESG채권 규모는 약 5,000억 달러(US)로 전년대비 74%성장했으며, 한국도 59조원으로 100%이상 성장했다. 이에 맞춰, ESG채권에 대한 표준 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EU는 2019년 녹색채권표준을 발표했으며, 한국 환경부도 2020년 12월 녹색채권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도 녹색채권표준을 준비 중이다.

5,000
억달러

글로벌ESG채권 규모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주식회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후에 확정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필요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채권은 발행 시, 그 사용 목적을 특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채권과 특수목적채권으로 구분된다. 최근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ESG채권은 특수목적채권에 해당된다.

채권은 또한 발행절차에 따라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구분된다. 공모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요예측 과정을 통해 발행금리가 결정된다. ESG채권은 주로 공모발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행절차는 일반채권 발행보다 복잡하다. ESG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금의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ESG채권 표준을 선택한 후, 해당 표준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ESG관련 채권표준은 채권 발행자가 채권발행 전 '자금의 용도',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사후보고' 등과 같은 핵심내용을 포함한 채권관리체계를

| | 2020년 발행액 | 누적 발행액 ¹ |
|-------|-----------|---------------------|
| 금융기관 | 55 조원 | 131 조원 |
| 비금융기관 | 3.5 조원 | 21.9 조원 |

ESG채권발행 유형별 세부설명

| 채권유형 | 세부 설명 |
|--------|---|
| 녹색채권 |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 |
| 사회적채권 |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 |
| 지속가능채권 | 친환경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 |

를 수립하여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발행자에게는 또한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자사의 채권관리 체계가 채권표준에 부합한 지 여부를 검토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2021년 7월말까지 발행된 누적 발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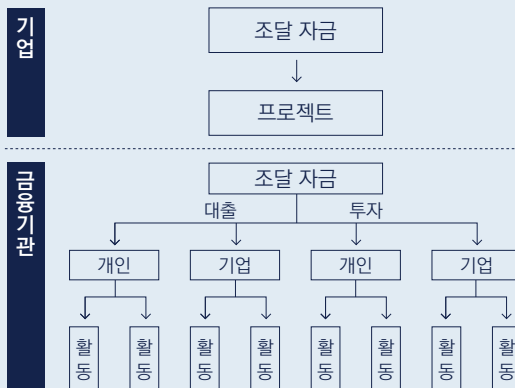
ESG채권발행 프로세스

채권발행 전

- 발행 개요(발행목적, 녹색경영 전략과 환경개선 목표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
- 조달자금의 사용처
-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과정
- 조달자금 관리
- 사후보고

발행 전 외부검토 (의무)

자금 집행



발행 후 외부검토 (자율)

사후보고(투자자에게 보고)

- 해당 프로젝트 목록
- 각 프로젝트 개요 및 배분된 금액
- 각 프로젝트의 예상되는 환경개선 효과
- 미사용 자금 있을 시, 미사용 금액, 사용예정 시기, 운용방법

Taxonomy에 기반

녹색채권발행 상위 기관
(누적 발행액¹)

1. 한국산업은행
3조원
2. 한국수출입은행
1.4조원
3. 신한은행
1.2조원
4. 현대카드
1.1조원
5. 현대캐피탈
1조원

ESG채권표준은 발행 이후에도 발행자에게 자금사용 현황 및 집행된 자금의 환경적 및 사회적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자금이 발행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발행 후 자금의 집행 및 효과 등에 대한 사항도 외부검토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은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집행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비금융기관은 조달자금을 자사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하는 반면, 금융기관은 자금을 다시 대출, 투자 등의 형태로 ESG관련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개인 등에게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ESG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발행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021년 7월 기준, 국내 ESG채권의 총 누적발행액은 153조원이다. 국내 ESG채권발행은 2013년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으로 조금씩 증가해오다가, 최근 3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누적 발행액 가운데 금융기관의 발행액 비율이 86%(131조원)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87조원 규모의 사회적채권으로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²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그 동

| | 2020년 발행액 | 누적 발행액¹ |
|--------|-----------|---------|
| 사회적채권 | 50.4조원 | 113.1조원 |
| 지속가능채권 | 6.7조원 | 22.3조원 |
| 녹색채권 | 1.8조원 | 17.7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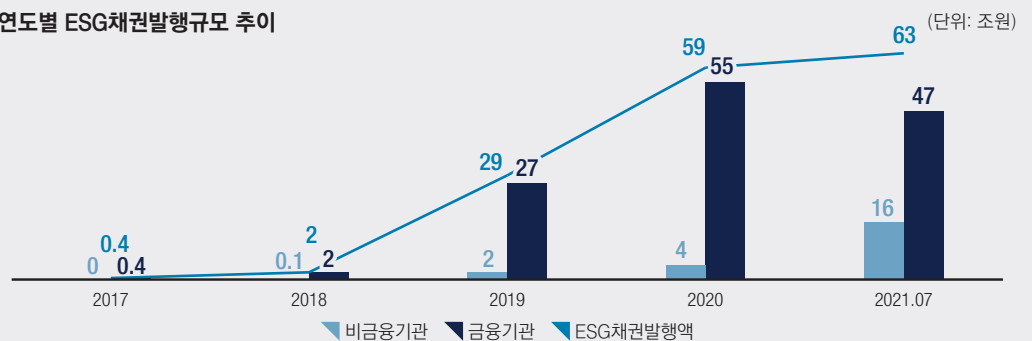
안 금융기관 중심으로 발행이 이어져왔던 ESG채권시장에서, 최근 비금융기관의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ESG채권은 일반적으로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목적의 녹색채권, 사회가치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회적채권, 환경과 사회가 결합된 지속가능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21년 7월 누적발행액 기준으로 사회적 채권의 비중이 74%로 가장 높았다. 이는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하면,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녹색채권의 비중은 각각 39%, 34%, 27%로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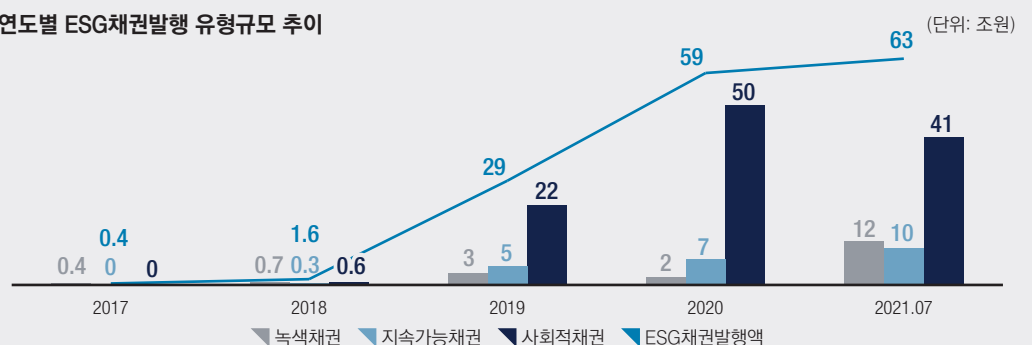
기업, 녹색채권 발행 급격히 증가

모든 유형의 ESG채권 발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녹색채권 발행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그 동

연도별 ESG채권발행규모 추이



연도별 ESG채권발행 유형규모 추이



1. 2021년 7월말까지 발행된 누적 발행액 기준
2. 주택을 담보로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금융회사들은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하고, 금융회사들은 그 주택저당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게 되며 그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담보로 하여 MBS라는 상품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 의해 MBS상품이 판매가 되어 현금화하여 금융회사에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사회적채권발행 상위 기관
(누적 발행액)

1. 한국주택금융공사
87조원
2. 중소기업은행
5조원
3.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4조원
4. 신용보증기금
2.8조원
5. 예금보험공사
2.6조원

안 ESG채권발행은 금융기관과 공기업이 주도해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민간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이 활발하다. 2021년 7월말까지의 녹색채권 발행액은 12조원에 이르러, 2020년 전체 발행액 1.8조원에 비해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재생에너지, 전기차 및 배터리 등 친환경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21년 40개의 기업이 76건의 녹색채권을 발행했고, 조달자금 규모는 8.1조원이었다.

원화 ESG채권 발행 급격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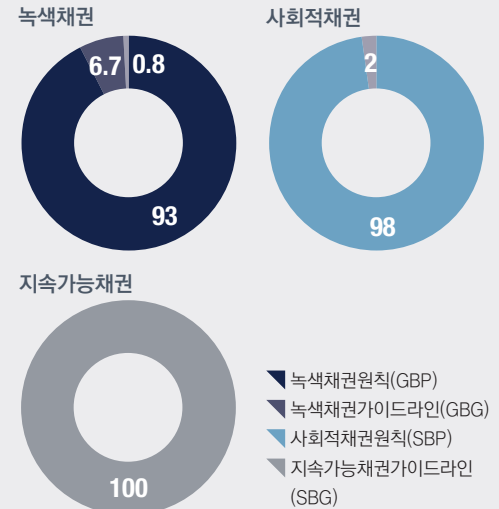
채권은 변제시점에 사용되는 통화에 따라 원화 또는 외화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달러, 유로화 등 외국환으로 지정된 채권은 외화채권, 원화로 지정된 통화를 원화채권이라고 부른다. 2019년을 기점으로 원화발행 채권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화 ESG채권은 2018년 1,000억원, 2019년 24.7조원, 2021년 7월말까지 57.4조원이 발행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채권을 제외하더라도, 2019년부터 매년 2배 이상 발행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ESG채권 기준 가장 많이 사용

ICMA의 ESG채권기준인 녹색채권원칙(GBP), 사회적채권원칙(SBP),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SBG)이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누적 발행건수 기준, 녹색채권의 93%, 사회적채권의 98%, 지속가능채권의 100%가 ICMA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2020년 12월 발표한 녹색채권가이드라인(GBG)을 적용한 사례는 8건이었다. 2021년 발행된 녹색채권

ESG채권발행 채권 적용 기준

(단위: %)



의 발행건수 기준 9%, 발행금액 기준 10%에 해당했다.

사회적채권가이드라인 및 분류체계 도입 서둘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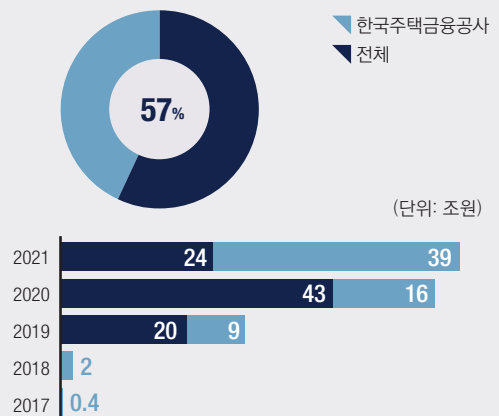
ESG채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린워싱 또는 ESG워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EU, 국제표준화기구(ISO) 뿐만 아니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도입될 예정으로, 녹색채권의 그린워싱 감독체계는 조만간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채권 및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사회적채권가이드라인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ESG채권의 기본이 되는 분류체계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채권 시장 규모를 고려한다면, 분류체계 도입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Case Study: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채권 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관련 신용보증과 보증자리론 등 민간은행이 제공한 서민주택대출의 주택저당채권²을 구매하여 이를 유동화하는 역할을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즉, 구매한 채권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MBS)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9년부터 처음 사회적채권을 발행했으며, 2021년까지 총 87조원의 사회적채권을 발행했다. 사회적채권을 통해 발생한 자금은 주택저당채권 구매, MBS 발행을 위한 지급보증, 이자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채권 발행액은 국내 누적 ESG채권발행액(153조원)의 57%를, 2020년 발행액의 73%를 차지한다.

전체 ESG채권발행액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중



1. 2021년 7월말까지 발행된 누적 발행액 기준
2.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채무자로부터 미래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ESG금융 현황 분석

ESG금융 분류체계

지속가능금융 또는 ESG금융정책은 금융기관의 중장기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SG금융 분류체계는 어떤 경제 활동이 환경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지 판단하는 수단으로 ESG 금융 정책의 시작점이다. EU도 2018년 지속가능금융액션플랜을 발표하며, 지속가능경제활동 분류체계 개발을 첫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차원의 ESG금융 분류체계 개발은 EU가 녹색분류 체계(Green Taxonomy) 초안을 발표한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EU, 한국 등은 금년 또는 내년을 목표로 녹색분류체계 개발을 진행 중으로, 현재 금융기관들은 자사의 ESG 금융활동 분류에 ICMA, CBI 등 ESG채권 관련 민간기구의 채권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카테고리 등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 금융기관이 ESG금융 분류에 활용하고 있는 분류 체계는 총 7개였으며, 일부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분류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환경(E)의 경우, 대출은 자체기준(77%, 금액기준) 및 GBG(18%) 활용 비율이 높았으며, 채권발행 시에는 모두 GBP를 활용하고 있었다. 사회(S)의 경우, 대출은 자체기준(48%)과 SDGs(27%), SBP(24%)를 활용하였으며, 채권 발행 시에는 주로 SBP(96%)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류체계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산업분류표 상의 대분류(일부 중분류)

분류체계 별 ESG금융유형 규모

(단위: 조원)



| | 분류체계 | 대출 | 채권발행 |
|----|------|-----|------|
| 환경 | 자체기준 | 39 | - |
| | GBG | 9 | - |
| | GBP | 2 | 2 |
| | 기타 | 1 | - |
| 사회 | SBP | 31 | 48 |
| | 자체기준 | 63 | - |
| | SDGs | 35 | - |
| | 기타 | 0.1 | 2 |

수준에 해당하는 목록정도만 제공하고 있어, ESG위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1. 분류체계: 기후채권표준(CBS), 녹색채권원칙(GBP), 사회적채권원칙(SBP),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SBG),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초안, 녹색채권가이드라인(GBG),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 개요

| 배경 및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50 탄소중립선언에 따른 녹색경제 인프라 구축• 글로벌그린뉴딜 정책으로 대규모 자금 녹색경제활동 집중 예상 → 그린워싱(Green washing)예방하기 위한 기준 마련 필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제시 → 녹색프로젝트나 녹색기술에 녹색자금이 많이 들어가도록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진행 현황 | <table><tr><td>2020</td><td>▶</td><td>2021.01</td><td>▶</td><td>2021.04</td><td>▶</td><td>2021.04~</td><td>▶</td><td>2021년내</td></tr><tr><td>녹색분류체계개발을 위한 포럼 개최</td><td></td><td>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 반영</td><td></td><td>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td><td></td><td>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적용 가이드 초안 발표 및 의견 수렴</td><td></td><td>최종안 발표 예정</td></tr></table> | | | | | 2020 | ▶ | 2021.01 | ▶ | 2021.04 | ▶ | 2021.04~ | ▶ | 2021년내 | 녹색분류체계개발을 위한 포럼 개최 | |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 반영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적용 가이드 초안 발표 및 의견 수렴 | | 최종안 발표 예정 |
| 2020 | ▶ | 2021.01 | ▶ | 2021.04 | ▶ | 2021.04~ | ▶ | 2021년내 | | | | | | | | | | | | | | | |
| 녹색분류체계개발을 위한 포럼 개최 | |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 반영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적용 가이드 초안 발표 및 의견 수렴 | | 최종안 발표 예정 | | | | | | | | | | | | | | | |
| 녹색 경제 활동 대상 | <table><tr><th>녹색부문</th><th>+</th><th>전환부문</th></tr><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6대 분야 57개 녹색경제활동 포함•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철강, 시멘트, 유기화학물질)의 제조활동은 원단위 배출량 벤치마크 기준 상위 20%이상(EU는 10%)은 녹색활동으로 포함• 화석연료 100%활용하는 경제활동 및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배제</td><td></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액화천연 가스(LNG)발전 사업과 LNG기반 수소 발전사업 온실 가스 감축활동에 포함•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한시적 인정</td></tr></table> | | | | | 녹색부문 | + | 전환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대 분야 57개 녹색경제활동 포함•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철강, 시멘트, 유기화학물질)의 제조활동은 원단위 배출량 벤치마크 기준 상위 20%이상(EU는 10%)은 녹색활동으로 포함• 화석연료 100%활용하는 경제활동 및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배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액화천연 가스(LNG)발전 사업과 LNG기반 수소 발전사업 온실 가스 감축활동에 포함•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한시적 인정 | | | | | | | | | | | | |
| 녹색부문 | + | 전환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대 분야 57개 녹색경제활동 포함•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철강, 시멘트, 유기화학물질)의 제조활동은 원단위 배출량 벤치마크 기준 상위 20%이상(EU는 10%)은 녹색활동으로 포함• 화석연료 100%활용하는 경제활동 및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배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액화천연 가스(LNG)발전 사업과 LNG기반 수소 발전사업 온실 가스 감축활동에 포함•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한시적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적용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경제활동 지침서로, 녹색금융에 활용 가능 (자발적)• 녹색금융활동 (녹색여신, 녹색펀드,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및 금융기관과 기업 공시 전반에 적용 기대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전 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 및 국제표준(ISO)개발·보안 현황, 국가 정책방향 등 고려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반영 예정• 중장기적으로 환경부는 6대 환경목표에 대한 경제활동 확정된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녹색분류체계 공시에 관한 사항 검토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 발표 임박

환경부는 2020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2021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분류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년 또는 내년 초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초안이 공개되어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초안에는 한시적이지만 LNG발전, 내연기관차 제조 등에 대한 금융지원도 녹색금융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분류체계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그린워싱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사용계획 없다고 밝혀

본 보고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사용 계획을 조사했다. 64개 기관이 사용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나, 46개 기관은 사용계획이 없다고 했으며 22개 기관은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다. 특히 공적금융기관 가운데 ‘사용계획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국내에서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한 한국수출입은행도 한국형 분류체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회분류체계 도입 서둘러야

투자대상기관의 ESG성적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ESG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ESG금융분야(대출, 상품, 채권발행)에서 사회(S)관련 금융활동으로 분류한 비중은 72%(금액기준)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사회(S)로 분류하여 보고한 활동이 ESG금융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이 ESG위상을 의도했다기 보다, 적용가능한 사회(S)관련 분류체계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해당 분류체계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금융기관이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ICMA의 사회적채권원칙(SBP)의 카테고리나 UN SDGs 모두 대분류 수준 활동명칭과 제한된 수의 예시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많은 수의 금융기관이 ESG금융의 사회(S)로 분류하여 보고한 사회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지원, 기술금융, 고용 창출 등은 사회적으로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U의 경우, 올해 7월 EU 사회분류체계(Social Taxonomy)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분류체계를 수직(Vertical dimension)과 수평(Horizontal dimension)으로 구분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공급(수직)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노동 등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수평)을 함께 제시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단순히 해당 프로젝트나 기업(또는 개인)에 자금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자금이 사용되는 과정이나 그 효과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 2022년까지 사회적 채권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회분류체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늘어나고 있는 ESG금융이 ESG위상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녹색분류체계 수준의 구체적 사회분류체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EU 사회분류체계(Social Taxonomy) 초안 구조¹

| | 목적 | 하위목적 | 예시 |
|------------------------------|---|-------------------------------|--|
| 수직 (Vertical dimension) | 적절한 생활 수준 향상 | 인간의 기본적 요구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 접근성 개선 | 폐수 관리를 포함한 물 / 음식 / 주택 공급 / 의료 및 보건 / 교육(직업훈련 포함) |
| | | 기본적 경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개선 | 교통 / 통신 및 인터넷 / 청정에너지 / (포용)금융 / 폐기물 관리 |
| 수평 (Horizontal dimension) |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긍정적 효과 촉진 및 부정적 효과 회피 및 제거 | 양질의일자리 보장 | 사회적 대화(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 차별주의 및 평등 / 아동노동 금지 / 강제노동 금지 / 양질의 고용 조건 (생활임금 및 노동시간) / 보건과 안전 / 직업훈련 및 고용 기술창출 / 사회적 안전성 / 가치사슬의 노동자 영향 |
| | | 소비자의 이익 증진 |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보장 /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 책임 있는 마케팅 관행 |
| | |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 평등과 포용적 성장 / 생활 지원/ 안전 및 보호, 인권보호 / 시민 참여 제도 civic space |

1. 출처: Draft Report by subgroup 4: Social Taxonomy (2021)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론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국내 공적, 민간 금융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 설문조사 방법

- 공적 금융기관: 국회 이용우의원실을 통해 공적 금융기관이 속해 있는 주무부처에 설문지 발송
- 민간 금융기관: 국회 이용우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했으며,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사로부터 자료 취합

▶ 조사내용

- 조사기간: 2021년부터 8월 - 9월
- 요청자료
 - 자산현황
 - 연도별 ESG금융 전체 현황
 - ESG대출 현황(2020년말 기준)
 - ESG투자(사회책임투자) 현황(2020년말 기준)
 - ESG금융상품 현황(2020년말 기준)
 - ESG관련 채권발행 현황
 - ESG금융목표 활성화 및 목표

▶ 설문 응답기관: 총 132개 금융기관 응답

- 공적 금융기관: 46개
- 민간 금융기관: 86개
 - 은행: 9개
 - 생명보험사: 16개
 - 손해보험사: 10개
 - 증권사: 29개
 - 자산운용사: 22개

▶ ESG채권발행 관련 자료 조사

- ESG채권발행은 위 조사자료와 함께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에서 2017년부터 2021년 7월말까지 공시된 데이터기준으로 진행됨

▶ 공모펀드 자료 조사

- 모닝스타 디렉(Morningstar Direct)과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의 공시자료를 참조
- 각 공모펀드의 ESG투자해당 여부는 투자설명서의 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모닝스타가 자체적으로 판단

[분석 방법론]

▶ 종합분석 시 사용 데이터 및 방법

- 본 보고서의 분석에는 취합데이터 가운데 2020년 말 기준의 ESG금융유형별(ESG대출, ESG투자, ESG금융상품, ESG채권발행)데이터를 기본 지표로 사용
- ESG대출의 경우, 대출 유형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자료 취합하여 분석에 사용
- ESG투자의 경우, 투자 유형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자료 취합하였으나, 위탁운용자산의 중복계상을 막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수탁 받아 운용하는 자산은 ESG투자 규모 산정에서 제외하여 분석
- ESG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상품 유형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자료 취합하여 분석에 사용
- ESG채권발행의 경우, 취합데이터와 '사회책임투자채권'에 공시된 데이터를 취합하여 분석하였으나, 채권발행의 중복계상을 막기 위해 금융권에서 입력한 '채권명'과 '종목명'을 비교하여 중복 데이터는 제외하여 분석에 사용
- 연도별 분석: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제공된 ESG금융현황의 데이터 사용
- E·S·G이슈별 분석: 취합데이터 가운데 E·S·G로 구분된 데이터만 사용

▶ 공모펀드 사용 데이터 및 방법

- 모닝스타 등급(스타등급) 분석: 하락위험이 반영된 모닝스타 고유의 위험조정수익률을 산출하여 정규분포상에서 10%, 22.5%, 35%, 22.5%, 10%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스타 개수를 부여하여 분석
- 모닝스타 지속가능성등급 분석: 재무적으로 중대한 ESG 리스크 이슈에 대해 동종그룹 대비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하여 비교집단 안에서 상위 10%(글로벌 5개), 22.5%(4개), 35%(3개), 22.5%(2개), 10%(1개)를 부여하여 분석

ESG금융 응답기관¹

| 기관명 | 주무부처 | K-분류체계 적용계획 여부 | ESG금융목표 수립여부 |
|------------------|-----------|-------------------|-----------------|
| 공적금융기관 | | | |
| 고용보험기금 | 고용노동부 | 미응답 | 미응답 |
| 공무원연금기금 | 인사혁신처 | 아니오 | 예 |
| 과학기술인공제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 | 아니오 |
| 과학기술진흥기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응답 | 미응답 |
| 국립해양과학관 | 해양수산부 | 아니오 | 아니오 |
| 국립해양박물관 | 해양수산부 | 아니오 | 아니오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해양수산부 | 아니오 | 아니오 |
| 국민연금기금 | 보건복지부 | 미응답 | 미응답 |
| 국유재산관리기금 | 기획재정부 | 미응답 | 미응답 |
| 근로복지진흥기금 | 고용노동부 | 미응답 | 미응답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산업통상자원부 | 아니오 | 예 |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위원회 | 미응답 | 미응답 |
| 보훈기금 | 국가보훈처 | 미응답 | 미응답 |
| 부산항만공사 | 해양수산부 | 예 | 아니오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교육부 | 미응답 | 미응답 |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 산업통상자원부 | 미응답 | 미응답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고용노동부 | 미응답 | 미응답 |
| 새마을금고중앙회 | 행정안전부 | 예 | 아니오 |
| 수산물안전기금 | 해양수산부 | 미응답 | 미응답 |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국가보훈처 | 미응답 | 미응답 |
| 시청자미디어재단 | 방송통신위원회 | 아니오 | 아니오 |
| 여수광양항만공사 | 해양수산부 | 예 | 아니오 |
| 우정사업본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아니오 | 아니오 |
| 울산항만공사 | 해양수산부 | 아니오 | 아니오 |
| 원자력기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응답 | 미응답 |
| 인천항만공사 | 해양수산부 | 아니오 | 아니오 |
| 임금채권보장기금 | 고용노동부 | 미응답 | 미응답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고용노동부 | 미응답 | 미응답 |
| 정보통신진흥기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응답 | 미응답 |
| 주택도시보증공사 | 국토교통부 | 아니오 | 아니오 |
| 중소기업은행 | 금융위원회 | 예 | 예 |
| 한국교직원공제회 | 교육부 | 아니오 | 아니오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통신위원회 | 미응답 | 미응답 |
| 한국산업은행 | 금융위원회 | 예 | 예 |
| 한국수산업공단 | 해양수산부 | 아니오 | 아니오 |
| 한국수출입은행 | 기획재정부 | 아니오 | 예 |
| 한국어촌여항공단 | 해양수산부 | 아니오 | 아니오 |
| 한국향로표지기술원 | 해양수산부 | 아니오 | 아니오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수산부 | 아니오 | 아니오 |

1. 기관(기금)순서는 섹터 내 가나다
2.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그룹 소속이 아니지만 보고서 편의상 같은 그룹으로 산정
3. 구 신한생명
4. 구 오렌지라이프
5. 구 DGB자산운용

| 기관명 | 주무부처 | K-분류체계 적용계획 여부 | ESG금융목표 수립여부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해양수산부 | 아니오 | 아니오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양수산부 | 아니오 | 아니오 |
| 한국해양조사협회 | 해양수산부 | 아니오 | 아니오 |
| 한국해양진흥공사 | 해양수산부 | 예 | 아니오 |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국토교통부 | 아니오 | 아니오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부 | 아니오 | 아니오 |
| 해양환경공단 | 해양수산부 | 아니오 | 아니오 |
| 민간금융기관 | | | |
| 은행 | | | |
| 광주은행 | JB금융그룹 | 예 | 아니오 |
| 농협중앙회 ² | 농협금융그룹 | 미응답 | 미응답 |
| 부산은행 | BNK금융그룹 | 예 | 아니오 |
| 신한은행 | 신한금융그룹 | 예 | 예 |
| 우리은행 | 우리금융그룹 | 예 | 아니오 |
| 하나은행 | 하나금융그룹 | 예 | 예 |
| BNK경남은행 | BNK금융그룹 | 아니오 | 아니오 |
| KB국민은행 | KB금융그룹 | 예 | 예 |
| NH농협은행 | 농협금융그룹 | 예 | 예 |
| 생명보험사 | | | |
| 교보생명보험 | 교보그룹 | 예 | 아니오 |
| 농협생명보험 | 농협금융그룹 | 예 | 예 |
| 동양생명보험 | 중국다자보험그룹 | 예 | 아니오 |
| 메트라이프생명 | 미국메트라이프 | 예 | 아니오 |
| 미래에셋생명보험 | 미래에셋그룹 | 예 | 예 |
| 삼성생명보험 | 삼성그룹 | 예 | 예 |
| 신한라이프 ³ | 신한금융그룹 | 예 | 미응답 |
| 신한라이프 ⁴ | 신한금융그룹 | 미응답 | 미응답 |
| 한화생명보험 | 한화그룹 | 예 | 아니오 |
| 흥국생명보험 | 태광그룹 | 아니오 | 아니오 |
| ABL생명 | 중국다자보험그룹 | 아니오 | 아니오 |
| DB생명보험 | DB그룹 | 아니오 | 아니오 |
| DGB생명보험 | DGB금융그룹 | 아니오 | 아니오 |
| IBK연금보험 | IBK금융그룹 | 아니오 | 예 |
| KB생명보험 | KB금융그룹 | 아니오 | 예 |
| KDB생명보험 | KDB금융그룹 | 미응답 | 미응답 |
| 손해보험사 | | | |
| 농협손해보험 | 농협금융그룹 | 예 | 예 |
| 롯데손해보험 | 롯데그룹 | 아니오 | 아니오 |
| 삼성화재 | 삼성그룹 | 예 | 예 |
|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 예 | 아니오 |

| 기관명 | 주무부처 | K-분류체계 적용계획 여부 | ESG금융목표 수립여부 |
|--------------|----------|-------------------|-----------------|
| 코리안리재보험 | 코리안리재보험 | 예 | 아니오 |
| 한화손해보험 | 한화그룹 | 예 | 아니오 |
| 현대해상화재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예 | 아니오 |
| 흥국화재 | 태광그룹 | 미응답 | 아니오 |
| DB손해보험 | DB그룹 | 아니오 | 아니오 |
| KB손해보험 | KB금융그룹 | 예 | 예 |
| 증권사 | | | |
| 교보증권 | 교보그룹 | 예 | 아니오 |
| 대신증권 | 대신금융그룹 | 예 | 아니오 |
| 리딩투자증권 | | 아니오 | 아니오 |
| 메리츠증권 | 메리츠금융그룹 | 예 | 예 |
| 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그룹 | 예 | 예 |
| 부국증권 | 한일그룹 | 아니오 | 아니오 |
| 삼성증권 | 삼성그룹 | 예 | 예 |
| 신영증권 | | 예 | 아니오 |
| 신한금융투자 | 신한금융그룹 | 예 | 예 |
| 유안타증권 | 유안타금융그룹 | 아니오 | 아니오 |
| 유진투자증권 | 유진그룹 | 예 | 아니오 |
| 이베스트투자증권 | | 예 | 아니오 |
| 카카오페이증권 | 카카오 | 아니오 | 아니오 |
| 케이프투자증권 | 케이프 | 아니오 | 아니오 |
| 코리야에셋투자증권 | | 예 | 아니오 |
| 키움증권 | 다우기술 | 예 | 아니오 |
| 하나금융투자 | 하나금융그룹 | 예 | 아니오 |
| 하이투자증권 | DGB금융그룹 | 예 | 아니오 |
| 한국투자증권 | 한국투자금융지주 | 아니오 | 아니오 |
| 한화투자증권 | 한화그룹 | 예 | 아니오 |
| 현대차증권 | 현대자동차그룹 | 예 | 예 |
| BNK투자증권 | BNK금융그룹 | 미응답 | 예 |
| DB금융투자 | DB그룹 | 예 | 예 |
| DS투자증권 | | 예 | 아니오 |
| IBK투자증권 | IBK금융그룹 | 아니오 | 아니오 |
| KB증권 | KB금융그룹 | 예 | 예 |
| KTB투자증권 | KTB금융그룹 | 예 | 아니오 |
| NH투자증권 | 농협금융그룹 | 예 | 예 |
| SK증권 | | 예 | 예 |
| 자산운용사 | | | |
| 교보약사자산운용 | 교보그룹 | 예 | 예 |
| 대신자산운용 | 대신금융그룹 | 아니오 | 아니오 |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 | 예 | 아니오 |
| 멀티에셋자산운용 | 미래에셋그룹 | 아니오 | 아니오 |

| 기관명 | 주무부처 | K-분류체계 적용계획 여부 | ESG금융목표 수립여부 |
|---------------------|----------|-------------------|-----------------|
| 미래에셋자산운용 | 미래에셋그룹 | 예 | 아니오 |
| 베어링자산운용 | 매스뮤추얼 | 아니오 | 아니오 |
|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삼성그룹 | 예 | 아니오 |
| 신영자산운용 | | 아니오 | 아니오 |
| 신한자산운용 | 신한금융그룹 | 예 | 아니오 |
| 우리글로벌자산운용 | 우리금융그룹 | 아니오 | 아니오 |
| 우리자산운용 | 우리금융그룹 | 예 | 예 |
| 트러스트자산운용 | | 예 | 아니오 |
| 하이자산운용 ⁵ | DGB금융그룹 | 예 | 예 |
| 한화자산운용 | 한화그룹 | 예 | 아니오 |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 현대해상화재보험 | 아니오 | 아니오 |
| 흥국자산운용 | 태광그룹 | 예 | 아니오 |
| BNK자산운용 | BNK금융그룹 | 예 | 예 |
| DWS자산운용 | 도이치뱅크그룹 | 아니오 | 아니오 |
| IBK자산운용 | IBK금융그룹 | 예 | 아니오 |
| KDB인프라자산운용 | KDB금융그룹 | 예 | 아니오 |
| KTB자산운용 | KT그룹 | 아니오 | 아니오 |
| NH-Amundi자산운용 | 농협금융그룹 | 예 | 예 |

공모펀드

지속가능성등급 및 저탄소지명¹

| 펀드명 | 설정일 | 글로벌 카테고리 | 모닝스타 지속가능성등급 ² | 저탄소 지명 ² |
|--------------------------------------|------------|-----------------------------|------------------------------|------------------------|
| 신한글로벌지속가능경영ESG (H)[주식혼합-재간접] C-s | 2020.9.17 | Aggressive Allocation | High | |
| 슈로더글로벌지속가능성장주 [주식-재간접] A-e | 2020.7.27 | Global Equity Mid/Small Cap | High | |
| 미래에셋글로벌ESG사회책임투자인덱스 자 (H)[주식-파생] F | 2020.4.20 | Global Equity Large Cap | High | Yes |
| 미래에셋글로벌ESG사회책임투자인덱스 자 (UH)[주식] F | 2020.4.20 | Global Equity Large Cap | High | Yes |
| KBSTAR ESG사회책임 | 2018.2.26 | Korea Equity | High | No |
|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 2018.2.6 | Korea Equity | High | No |
|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설 | 2018.2.6 | Korea Equity | High | Yes |
| KODEX MSCI ESG유니버설 | 2018.2.6 | Korea Equity | High | No |
| 삼성클래식글로벌클린에너지연금 자(H)[주식-재간접] Ce | 2014.8.22 | Energy Sector Equity | High | No |
| 한국투자ESG 1[주식] C-F | 2008.8.18 | Korea Equity | High | Yes |
|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 자 [주식] | 2008.5.2 | Energy Sector Equity | High | |
| 키움퓨처에너지 1[주식] A1 | 2007.6.28 | Energy Sector Equity | High | |
| 삼성글로벌클린에너지 자 2[주식-재간접] A | 2007.6.25 | Energy Sector Equity | High | No |
| 삼성글로벌클린에너지 자 1[주식-재간접] A | 2007.6.25 | Energy Sector Equity | High | No |
|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 자 [주식] C1 | 2007.4.16 | Energy Sector Equity | High | |
|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포커스 자 [주식] A | 2007.4.12 | Energy Sector Equity | High | |
| 멀티에셋글로벌클린에너지 자 2[주식] C1 | 2007.4.6 | Energy Sector Equity | High | |
| KODEX 200ESG | 2019.11.13 | Korea Equity | Above Average | No |
| KB글로벌ESG성장리더스 자 (H)[주식] C-F | 2019.5.29 | Global Equity Mid/Small Cap | Above Average | Yes |
| 코레이트주주성장타겟 [주식] C-F | 2019.5.16 | Korea Equity | Above Average | |
| 브이아이캐드리얼글로벌4차산업 자 (UH)[주식-재간접] C-Pe2 | 2019.1.22 | Technology Sector Equity | Above Average | Yes |
| 브이아이캐드리얼글로벌4차산업 자 (H)[주식-재간접] C-Pe2 | 2019.1.22 | Technology Sector Equity | Above Average | Yes |
|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 자 [주식] A | 2017.10.26 | Global Equity Mid/Small Cap | Above Average | Yes |
| 삼성ESG착한책임투자 1[주식] Cf | 2017.8.17 | Korea Equity | Above Average | No |
| 삼성유럽ESG 자 (UH)[주식] Cp(퇴직연금) | 2016.8.10 | Europe Equity Large Cap | Above Average | No |
| 삼성유럽ESG 자 (H)[주식] Cf | 2016.5.19 | Europe Equity Large Cap | Above Average | No |
| 이스트프링엄저축종일등ESG 자 [주식] C | 2015.12.14 | Korea Equity | Above Average | Yes |
| IBK다보스글로벌고배당 자 4[주식] C | 2015.3.11 | Global Equity Large Cap | Above Average | Yes |
| 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 자 [주식] A | 2009.6.5 | Korea Equity | Above Average | No |
| KB ESG성장리더스 자 [주식] A | 2008.5.9 | Korea Equity | Above Average | No |
| IBK다보스글로벌고배당 자 5[주식] A | 2008.1.25 | Global Equity Large Cap | Above Average | Yes |
| IBK다보스글로벌고배당 자 2 [주식] A | 2007.12.17 | Global Equity Large Cap | Above Average | Yes |
| 알파글로벌신재생에너지 자 1[주식] A | 2007.9.3 | Energy Sector Equity | Above Average | |
| IBK다보스글로벌고배당 자 6[주식] A | 2007.6.21 | Global Equity Large Cap | Above Average | Yes |
| 이스트프링지속성장기업 [주식] C-F | 2005.6.7 | Korea Equity | Above Average | No |
| 이스트프링업종일등ESG 자 [주식] C | 2005.1.18 | Korea Equity | Above Average | Yes |
| NH-Amundi 100년기업그린코리아 [주식] Cf | 2020.9.3 | Korea Equity | Average | |
| 키움올바른ESG 1[주식] C-F | 2019.6.4 | Korea Equity | Average | No |
| KTB ESG1등주 [주식] CF | 2019.3.20 | Korea Equity | Average | |
| 교보약사그린디지탈 자 2[주식] C-I | 2015.8.24 | Korea Equity | Average | |

1. 출처 : 모닝스타코리아

2. Morningstar® Portfolio Carbon Risk Score™와 The Morningstar® Portfolio Fossil Fuel Intervention™의 두 가지 측정 기준 기반

| 펀드명 | 설정일 | 글로벌 카테고리 | 모닝스타 지속가능성등급 ² | 저탄소 지명 ² |
|-------------------------------------|------------|--------------------------|------------------------------|------------------------|
| 신한아름다운SRI그린뉴딜 자 2[주식] A1 | 2014.6.5 | Korea Equity | Average | No |
| 우리G코리아ESG소특공제장기 자 [주식] C | 2014.3.25 | Korea Equity | Average | No |
| 교보약사그린디지털 자 [주식] A1 | 2010.11.15 | Korea Equity | Average | |
| 우리G코리아ESG 자 [주식] A | 2008.10.29 | Korea Equity | Average | No |
| HDC좋은지배구조 1[주식] A | 2007.4.5 | Korea Equity | Average | No |
| 우리G 글로벌에코테크 [주식] A | 2007.3.6 | Equity Miscellaneous | Average | Yes |
| NH-Amundi장기성장대표기업 [주식] C1 | 2006.8.1 | Korea Equity | Average | No |
| 신한아름다운SRI그린뉴딜 자 1[주식] A2 | 2005.11.15 | Korea Equity | Average | No |
| 우리지속가능ESG 자 1[주식] A | 2004.10.6 | Korea Equity | Average | No |
| 우리지속가능ESG 자 2[주식] | 2002.1.11 | Korea Equity | Average | No |
| 한국투자글로벌별첨한기업ESG [주식-재간접] C-F | 2019.3.8 | Global Equity Large Cap | Below Average | Yes |
| 한화코리아레전드ESG 자 [주식] C-f | 2018.12.17 | Korea Equity | Below Average | No |
| 메리츠더우먼 [주식] CF | 2018.11.2 | Korea Equity | Below Average | |
| FOCUS ESG Leaders150 | 2017.12.12 | Korea Equity | Below Average | No |
| ARIRANG ESG우수기업 | 2017.8.29 | Korea Equity | Below Average | |
| 브이아이사회책임투자 [주식] C-F | 2017.5.29 | Korea Equity | Below Average | No |
| KB그린성장포커스 자 [주식] AE | 2012.11.28 | Equity Miscellaneous | Below Average | No |
| 삼성퇴직연금글로벌별첨에너지40 자 1[채권혼합] | 2011.4.26 | Cautious Allocation | Below Average | |
| 미래에셋좋은기업ESG 자 [주식] C5 | 2010.10.25 | Korea Equity | Below Average | No |
| 마이다스책임투자 [주식] Ce | 2009.4.20 | Korea Equity | Below Average | |
| 삼성글로벌별첨에너지30 자 1[채권혼합] A | 2007.7.18 | Cautious Allocation | Below Average | |
| 삼성퇴직연금글로벌별첨Water40 자 1[채권혼합] | 2007.6.22 | Cautious Allocation | Below Average | |
| 한화그린히어로 자 [주식] C-f | 2020.10.16 | Global Equity Large Cap | Low | |
| NH-Amundi 4차산업혁명연금증권전환형 자 [주식] C-P1 | 2010.10.4 | Technology Sector Equity | Low | |
| NH-Amundi 4차산업혁명 자 [주식] A | 2009.12.11 | Technology Sector Equity | Low |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0608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 707호
Tel: +82 (0)2 738 1142
www.kosif.org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실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3호
T. +82 (0)2 784 8780
minjoolee2020@gmail.com